

## 제5장 관 방 유 적

### 1. 보령읍성과 관아

#### 1) 보령 치소의 이동

보령시 주포면 보령리에 오늘날 알려져 있는 보령읍성은 세종 20년(1430)에 쌓아서 치소의 기능을 하였던 곳이다. 그 이전의 보령 치소는 구성재와 봉당성(고남성)에 있었다. 주포면 보령리 田 560·561·562번지 일대의 구성재는 백제시대부터 조선 정종 2년(1400)까지 보령현의 치소였다. 이곳에서는 백제시대부터 조선초기까지의 다양한 와편이 수습되었는데, 특히 「新村」 명문의 백제기와편이 수습되고, 큰 건물 문초석이 발견되며, 고려청자·분청사기 파편도 수습되었다. 이 지역은 지대는 낮지만 북쪽부분이 하천에 의해서 침식되어 높이 15m 정도의 급사면이 있으며, 낮은 구릉 위의 평지, 넓은 개활지상의 구릉이라 사방을 관망하기 좋으며, 진당산성·봉당성(고남성)·아현산성의 가운데에 위치하여 유사시 피난하기에 유리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주포면 봉당리 산 62번지 봉당성은 정종 2년부터 세종 14년(1432)까지의 보령현 치소였다. 세종 13년(1431)에 보령현감으로 부임한 정대(鄭帶)의 「동헌기(東軒記)」에 의하면, 보령이 고려 충정왕 2년(1350)부터 왜구의 침입을 받아 정종 2년(1400)에 봉당에 성을 쌓고는 이를 방어하는 곳으로 삼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봉당성은 성지(城池)가 얇고 좁은 데다가 험준하고, 막혀서 서로 통하지 않는 견고함과, 우물을 보유하는 편리한 점이 없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읍석성으로 기록된 이 봉당성은 당시 둘레가 173보로 우물이나 샘이 없었다.

그리하여 주포면 보령리 266번지 일대 지내동에 세종 12년(1430) 성을 쌓고, 2년여 동안 계속 관아시설 공사를 하여 세종 14년(1432)에 공해를 완성하여 보령현 치소로 삼게 되었다. 이 곳은 조선 세종 때부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군청이 대천으로 옮겨질 때까지 보령현(군)의 치소 역할을 하였다.

## 2) 보령읍성의 축성과 규모

보령시 주포면 보령리에 오늘날 남아 있는 보령읍성은 세종 12년(1430) 축성되었다. 봉당성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세종 12년(1430) 가을에 순찰사 최윤덕(巡察使 崔潤德)이 감사 박안신(監司 朴安信), 원용 이흥발(元戎 李興發)과 더불어 봉당성 동쪽 1리 지점인 지내동(池內洞) 당산(堂山) 남쪽 지점을 살펴보고는, 서산군사(瑞山郡事) 박눌생(朴訥生)과 보령현감 박효성(朴孝誠)으로 하여금 공역을 헤아려 기한을 명하였던 바, 수 개월 만에 낙성을 하게 되었다.

그 축성과정은 조선왕조실록 세종 12년 9월 24일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도순찰사(都巡察使) 최윤덕(崔潤德)이 아뢰기를, “충청도 비인(庇仁)·보령(保寧)의 두 현(縣)은 해구(海寇)들이 가장 먼저 발길을 들여놓는 지대인데, 비인의 읍성(邑城)은 평지에 위치하여 있고, 보령의 읍성은 높은 구릉(丘陵)에 위치하고 있어 모두 성터로 맞지 않습니다. 또 잡석(雜石)을 흙과 섞어서 축조한지라 보잘 것이 없고 험착한 데다가 또한 우물과 샘[泉]마저 없으니, 실로 장기간 보전할 땅이 아닙니다. 비인현 죽사동(竹寺洞)의 새 터와 보령현 고읍(古邑) 지내리(池內里)의 새 터는 삼면이 험준한 산을 의지하고 있는 데다가, 그 내면도 넓고 샘물도 또한 풍족하여 읍성을 설치하기에 마땅할 뿐 아니라, 본현과의 거리도 불과 1리밖에 되지 않아서 진 실로 옮겨 가고 오는 폐단도 없사오니, 윗항의 새 터에 본도 중에서 벼농사가 잘된 각 고을에 적당히 척수(尺數)를 안배해 주어 10월부터 역사를 시작하게 하고, 감사와 도절제사로 하여금 그 축조를 감독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결국 이에 따르면 보령읍성은 위치가 읍성으로서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좁고 우물이 없어서 오랫동안 안정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새로 터를 잡아야 한다는 점과 보령읍성의 경우 새로 정한 곳은 삼면이 험하고 내부가 넓으며, 또한 우물이 충분하다는 점과 본현에서의 거리도 1리밖에 떨어지지 않아 옮기는 데 불편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어 3개월 후인 세종 12년 12월 29일조에 “도순문사(都巡問使) 최윤덕(崔潤德)이 충청도의 비인(庇仁)·보령(保寧) 등의 성을 쌓았다. 이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부종관(副從官)을 시켜 창기를 데리고 연회를 베풀어, 군현(郡縣)에서 치다꺼리에 지치고, 백성은 근심하며 원망하는 자가 많았다.”라고 하여 3개월 만인 세종 12년(1430) 12월에 보령읍성이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후 완성된 보령읍성의 규모에 대하여 문종원년 9월 5일조에 “보령현 읍성은 주위가

2,109척, 높이가 12척이고, 여장의 높이는 2척이며, 적대가 8개소, 문이 3개소인데 그 중 1개소는 옹성(擁城)이 없고, 여장이 412타이고, 해자(垓子)의 주위는 2,109척이며, 성안에 우물이 3개소가 있다”고 기록되었다.

이후 보령읍성의 규모에 대한 기록으로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읍성은 석축인데, 둘레가 2,109척 높이가 12척, 안에는 우물 3개가 있다고 하였다. 『동국여지지』에는 현의 성은 돌로 쌓았는데, 주위가 2,190척, 남쪽에 문이 있고, 샘이 세 개 있으며, 세종 12년에 쌓은 것이라고 하였다. 『여지도서』에 주위(둘레)는 장(丈)으로 계산하면 530장, 척으로 계산하면 2,109척, 보(步)로 계산하면 1507보이고, 높이는 장으로 계산하면 3장 2척, 척으로 계산하면 12척, 보로 계산하면 6보이고, 성내에는 샘 2개와 연못 1개가 있는데, 샘 한 개는 주위가 7척, 깊이가 2척이고, 연못 둘레는 60척, 깊이가 2척이다. 객사(客舍) 10칸, 아사(衙舍)·동헌(東軒)이 10칸이다. 라고 하였다. 『충청도읍지』에는 읍성은 석축인데, 주위가 2,109척, 높이가 12척이며, 안에는 샘 2개, 연못 1개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세종 때 축성된 보령읍성의 규모는 큰 변화없이 조선시대 동안 계속 지속되어 오늘날까지 이어 내려오는 것이다.

현재 보령읍성의 길이는 880m 정도이다.

### 3) 보령읍성의 현황

보령읍성은 보령시 주포면 보령리 한가운데에 위치한다. 주변에서 보면 읍성의 배후에는 진당산이 높게 솟아 있는데, 진당산에서 서쪽으로 내려오는 능선과 사면이 평야지대와 접하면서 알아지는 지맥의 끝단에 구릉 일부를 포함하여 축성하고 있다. 진당산에서부터 서쪽으로 길게 늘어지면서 연결되는 구릉의 선상부를 따라 축성한 성벽은 구릉 일부를 포함한 저평한 평지를 둘러싸고 있는데, 전체 둘레는 880m로서 한가운데 자그마한 곡부를 포함하고 있는 포곡식 형태의 읍성이다. 읍성의 뒤에 있는 해발 350m의 진당산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된 대로 보령읍성의 진산(鎭山)이다.



보령읍성

보령읍성의 현재 상태는 북벽 일부분을 포함하여, 남벽과 동벽 구간은 모두 근래 해체 복원되었으며, 축조 당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북벽의 일부 구간, 서벽

구간에 한하고 있다. 성벽의 축성은 외벽을 석축으로 쌓아올리고 내부는 채움석과 흙으로 성토다짐하는 내탁식을 중심으로 축성하였다.

성벽에 사용된 성돌은 한 변의 길이가 2m 가까이 되는 매우 큰 석재를 사용하고 있는데, 복원 구간에서는 새롭게 구해온 장방형으로 다듬은 비교적 작은 성돌을 사용하고 있어, 본래의 성벽과 복원된 성벽의 성돌 축성 상태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성벽 보수는 1차 1992년 남벽 115m, 2차 2001년 동벽 130m, 3차 2002-2003 동벽 69m, 4차 2004-2005년 동벽·북벽 40m가 이루어졌다.

서벽에는 단양·제천·전의 등 고을에서 동원된 사람들이 축성했다는 명문의 성돌이 있으며, 동벽에는 천안 고을에서 동원된 사람들이 축성했다는 명문이 새겨진 성돌이 있다.

기록에 따르면, 읍성은 총 3개소의 문지와 적대 8개소, 우물 3개소, 해자 등이 시설되었으며, 성내에는 총 140여 칸에 이르는 건축을 축조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는 문지 3개소와 적대 3개소만 확인될 뿐 해자나 성내 건축물은 남아 있지 않다. 우물은 성내에 초·중학교가 들어서면서 모두 메워버렸다 한다. 문지는 해산루가 있는 남문을 비롯해서 동문과 북문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북문은 학교 울타리 조성으로 흙과 돌로 막아놓았다. 보령읍성은 해자 2,190척을 만들어 성벽보다 81척이 긴 해자가 있었다. 이 해자 조성시 나오는 토사는 성벽의 내탁을 하는데 사용하였다. 현재 성 바깥 10m 지점에 논과 밭으로 조성된 낮은 지반이 있는데, 이것이 모두 해자시설이었다.

#### 4) 관아시설

현재 보령읍성 내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을 뿐 읍성과 관련하여 잔존하고 있는 시설물이 남문의 문루(해산루)만 제외하고는 전혀 없다. 읍성으로 기능할 당시의 내부 시설물에 대하여 고지나 읍지 등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 (1) 보령관아문(海山樓)

- 지정 : 충청남도지정 유형문화재 제40호 (1976년 1월 8일)
- 위치 : 보령시 주포면 보령리 262-2

조선시대 보령읍성의 남문(南門)이다. 장초석(長礎石) 위에 기둥을 한 정면 3칸 측면 2칸의 2층 누각의 건물이며, 2층에는 난간을 만들었으며 지붕은 홑처마 팔작지붕형식이다. 1층에서는 정면 3칸이지만 양편의 기둥을 성벽 위에 걸쳐 세워 성곽의 일반문루 건물처럼 중앙 1칸으로만 통행하도록 되어 있다. 조선왕조의 중앙집권을 상징하기 위해 당시

진국에 똑같이 만들어진 관아문 양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정면에는 해산루(海山樓)라는 현판이 걸려 있는데 조선 선조 때 영의정을 지낸 이산해(李山海)의 친필로 구전해 온다.



해산루

## (2) 동헌(東軒)과 내아(內衙)

동헌은 지방 관아의 정무가 행해지던 건물이지만 지금은 없다. 관찰사, 병마절도사, 수군절도사, 이밖의 수령의 정청으로 지방의 일반 행정업무와 재판이 행해지던 건물이다. 동쪽에 있는 행정청이라는 의미에서 ‘동헌’이라고 하였으며, 수령의 살림채인 내아는 서헌이라고 하기도 했다.

동헌과 내아는 담이나 행랑으로 격리되어 있었고, 가운데 협문으로 통행하였다. 내아는 수령가족의 생활공간으로 안방·대청·건넌방·부엌·찬방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위에 곳간 등의 부속체가 딸려 있었다. 보령현 동헌과 내아의 경우 중앙 뒤편에 위치하며, 동편으로는 창고가 있다. 보령현의 동헌은 『여지도서』에 의하면 10칸이었다.

### ○ 『신증동국여지승람』 정대(鄭帶)의 동헌기(東軒記)

보령(保寧)이 경인년부터 바다 도적의 해를 입어 우리 태조 경진년에 봉당(鳳堂)에 성을 쌓고는 이를 방어하는 곳으로 삼았다. 그러나 성지(城池)가 얇고 좁은 데다가 험준하고 조격(阻隔)한 공고(鞏固)함과 우물을 보유하는 편리한 점이 없더니, 세종 경술년 가을에 순찰사(巡察使) 최윤덕(崔潤德)이 감사(監司) 박안신(朴安信), 원융(元戎) 이흥발(李興發)과 더불어 다시 성 동쪽 1리 지점인 지내동(池內洞) 당산(唐山) 남쪽을 살펴보고는, 서산군사(瑞山郡事) 박눌생(朴訥生)과 현수(縣守) 박효성(朴孝誠)으로 하여금 공역을 헤아려 기한을 명하였던 바, 수 개월이 못 되어 낙성(落成)을 고하게 되었다. 내가 신해년 겨울에 박현수를 대신하여 이 고을에 왔고, 다음 해에 비로소 객관과 동서름(東西廩)·제민당(濟民堂)·공아(公衙)·현사(縣舍)·어풍정(馭風亭)·병기고(兵器庫)·영어(囹圄 옥(獄)) 등을 지어 이루니, 모두 1백 40여 칸에 달하였다.

## (3) 객사(客舍)

객사는 출장관원이나 사신들이 머무는 숙소인데, 객관이라고도 한다. 정당을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온돌로 만든 익실(翼室)을 두고, 앞에는 내삼문과 외삼문이 있다. 객사

에는 전패(殿牌)를 안치하고, 수령을 비롯한 관원들이 초하루와 보름에 대궐을 바라보며 절하는 장소이다. 임금을 상징하는 전패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의미에서는 동헌보다 더 중요한 건물이라 할 수 있다. 관찰사가 순시할 경우 이곳에서 잔치를 열거나 백성들에게 향시를 베풀기도 하였다. 보령현의 객사는 신성관(新城館)으로 불렸으며, 『여지도서』에 의하면 10칸이었다. 읍성 동편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다.

#### (4) 삼문

동헌이나 객사 앞에는 삼문이 있는데, 가운데 문으로는 수령과 사신·빈객들이 드나들었고, 왼쪽문으로는 향토의 일반 양반이나 아전들이, 오른쪽 문으로는 군관이나 장교, 또는 백성들이 드나들었다. 큰 읍성에는 삼문이 둘씩 있었는데, 안에 있는 것이 내삼문, 밖에 있는 것이 외삼문이다. 동헌과 객사에 각각 삼문이 둘씩 있으면 삼문이 4개가 된다. 보령읍성에는 객사에만 내·외삼문이 있고, 동헌에는 내삼문만 있는 것으로 고지도에서 확인된다.

#### (5) 향청(鄉廳)

향청은 지방의 양반들이 중앙에서 임명받고 내려온 수령을 자문 보좌하던 자치기구인데, 조선초기에는 유향소로 불리다가 임진왜란 이후 향청이라고 불렸다. 조선후기에는 수령이 집무하는 동헌 다음의 두 번째 관아라는 의미로 향청을 이아(貳衙)라고도 하였다. 향촌 교화를 목적으로 두었으며, 좌수(座首)는 수령의 수석보좌관이 되어 향민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각종 송사를 처리했으며 환곡을 처리했다.

#### (6) 작청(作廳)

조선시대 지방 관아의 6방 가운데 우두머리인 이방(吏房)이 근무하던 이방청(吏房廳)으로, 주로 민원을 처리하는 곳이었다.

#### (7) 창고

곡물이나 옷감 무기 등을 보관하던 곳이다. 읍성 밖에 두는 경우도 있으나 군기고·무기고 등은 반드시 읍성 안에 두었다.

#### (8) 군기고

무기를 보관하던 창고로 읍성의 동편 남쪽에 치우쳐 있었다.

(9) 장청(將廳)

장청은 실체가 분명하게 밝혀져 있지 않으나 향청에서 가지고 있던 지방관아의 군무를 점차 분리·담당한 곳으로 추정된다.

(10) 사령청(使令廳)

사령청은 관아의 수령이 발(發)하는 지시사항, 반포사항, 처분사항 등의 각종 명령을 전달·전파·집행하는 사람, 즉 관아의 사령들이 대기하는 장소였다.

(11) 폐문루(閉門樓)

동헌의 정문으로, 일반적으로 감영의 정문은 포정문(布政門)이라고 하나 문루에 북을 달아 놓아 성문의 개폐시간을 알렸기 때문에 개문루(開門樓)라고도 한다. 동헌과 남문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었다.

(12) 형리청(刑吏廳)

형방의 근무처로 폐문루의 동편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13) 영선(營繕)

읍성 안의 각종 시설물의 수리를 담당한 곳으로 추정되며, 객관의 남서편에 위치하고 있었다.

(14) 화약고

화약을 저장하던 창고로 읍성 안의 남쪽 동편에 위치하고 있었다.

(15) 연못

읍성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여지도서』에 의하면 둘레 60척, 깊이 2척이었다고 한다.

(16) 누정(樓亭)

① 어풍정(馭風亭)

객관과 동헌(東軒) 북쪽에 있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박눌생(朴訥生)의 기문에, “신해년에 온천(溫泉) 정공(鄭公) 대(帶)가 이 고을의 수령이 되어 왔는데, 그 정사가 청렴하고 송사를 잘 다스리니, 백성들이 즐겨 역사에 달려가서 관우(館宇)와 공청(公廳)을 한결같이 모두 신축하였고, 또 동쪽 봉우리 위에 정자를 짓고는 도식(塗飾)과 단청(丹青)을 이미 마치고 나서 나에게 명명(命名)해 주기를 청해 왔는지라, 내 그 경치를 보려고 처음 정자 위에 올라 보니, 북쪽으로 높은 산에 의거하고, 남쪽으로는 큰 들을 내려다 보고 있어 누정의 마루가 시원하고 처마도 나는 듯이 높이 솟아서 마치 구산(緱山) 산마루에 올라 낭풍(閔風 산이름)을 제어해 보는 것 같았으므로, 이름하기를 어풍(馭風)이라 하였다고 하였는데, 해가 오래되고 퇴락하여 현감 박적손(朴迪孫)이 이를 중수(重修)하니, 관찰사(觀察使) 정미수(鄭眉壽)가 이름을 무이정(撫夷亭)이라고 고쳤다.” 하였다.

② 무이정기(撫夷亭記) - 최부(崔溥) -

산이 바다 동쪽 가에 높이 솟은 것은 곧 오성(烏聖)이고, 바다가 그 산의 서쪽 기슭에 널리 흐르는 것은 곧 발해(渤海)이고, 산과 바다 사이에 시내가 돌리고 숲이 얽혀서 성첩과 울타리가 종횡(縱橫)으로 보이는 것은 곧 보령성(保寧城)이다. 성 동남 모퉁이에 커다란 언덕이 높이 솟아 마치 망적대(望敵臺)처럼 생긴 것이 있으니, 선덕(宣德) 임자년에 고을 원 정대(鄭帶)가 새로 관사를 세웠는데, 그 언덕 마루턱을 평평히 깎고 작은 정자 하나를 지었으니, 대개 상개(爽塏)함을 취함이요, 또 가히 관망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세월이 흘러 관사가 흔들리고 정자가 폐하여 손님과 나그네들이 추위와 더위를 겪어도 목을 곳이 없었다. 홍치(弘治) 임자년에, 박후(朴侯) 적손(迪孫)이 원으로 와서 정사가 통하고 물건이 충분하여 재원이 넉넉하매 드디어 아전과 백성을 모아서 새로 공사할 것을 꾀하여 공장이와 힘을 헤아려 재목을 신고 돌을 다듬어, 톱질하는 자, 도끼질하는 자가 자와 대패와 확(護)으로 그 지휘를 좇아서 일을 했다. 그 다음해에 공야(公衙)가 이룩되고, 또 다음해에 관청(官廳)이 이룩되고, 또 그 다음해에 객관(客館)과 동헌(東軒)이 이룩되며, 또 다음해에 정자의 옛터 몇 칸을 세우되, 그 서편을 넓혀서 바다 기운을 받아들이고, 그 동편에는 온돌을 내어 추위를 방지하기로 하였다. 이제 들창과 문이 영롱하고, 섬돌과 주초를 준설하여 솟은 듯이 나는 듯이 단청빛이 서로 쏘는 듯하여, 산은 더욱 높고 이 바다는 더욱 넓어, 내와 구름은 날로 그 경계를 더하는 듯하니, 참으로 이 고을이 한 번 거듭 새로워졌다. 임자년에 새로 세워 또 임자년에 중수되었으니, 어찌 하늘이 때를 기다렸던 것이 아닌가. 정자가 이룩되던 가을에, 내가 역마를 달려 바다를 끼고 남으로 내려갈 제 용곡(龍谷)으로부터 아침에 이 고을에 이르렀다. 지금

관찰사(觀察使) 정미수(鄭眉壽) 공이 먼저 정자 위에 이르러서 바람을 싫어하여 장막을 쳤었다. 나에게 의자를 주고는 웃으면서 고급의 일을 이야기할 제, 술도 마시고 시도 읊다가 해가 낮이 되매 장막을 걷고 사방을 바라보니 엷은 구름이 약간 가리고, 바람이 자매 물과 하늘빛이 같고 물새들이 날아드는데, 내 속에 해오라기는 흰 빛을 비추고 고개의 소나무는 푸른빛을 보내어 천태만상이 별안간 드날리곤 하였다. 나는 이를 보고 머뭇거리다가 감탄의 소리를 내었다. “아, 정자의 괴관(瑰觀)이여, 내 일찍이 북해에 표박하여 구월(甌越)에 닿고 강회(江淮)를 건너 북으로 갔을 제, 아름다운 산과 기이한 물을 많이 보았는데, 생각하기를, 우리 동방처럼 좁은 지역에 어찌 그런 것이 있겠는가.” 하였더니, 이제 오성(烏聖)의 모든 산을 보매 회계(會稽)와 사명(四明)과 더불어 형제 같고, 안면의 형승은 태주(台州)의 해문(海門)과 더불어 자웅을 다퉴 수 있었고, 해포(蟹浦)의 낮은 경구(京口)의 모임과 같으며, 고래 조수가 하늘을 차는 광경은 절강(浙江)의 구경보다 크게 낮고, 높은 멧부리가 바다에 솟은 것은 포산(苞山)의 점대호(點大湖)보다 나오니, 옛날 천만 리를 다니면서 배와 수레에서 얻은 바가 이 한 정자 밑에 일목요연하여, 홍몽(鴻蒙)의 세계를 헤치고 괴소(塊蘇)와 운몽(雲夢)을 굽어보매 이 흥회가 그 팔구분(八九分)을 점유하고 말 것인가 하니 관찰공(觀察公)이 이 말을 듣고 쾌하게 여겨 이내 나에게 말하기를, “박후(朴侯)는 내 이미 그 사람됨을 알았었소. 그 몸에 육도(六韜) 삼략(三略)을 품었으나 크게 쓰이고자 하지 않고, 여러 차례 아버지가 늙었다 하여 돌아갈 것을 빌매 조정에서도 역시 이 고을을 빌려서 영예롭게 하였으니, 그 뜻을 취할 만하더니, 고을 원이 되자 공금도 허비하지 않고 백성도 괴롭히지 않고서 크게 정관(亭館)을 새롭게 하여 마치 하늘이 이룩하는 듯하니, 그 재간이 어질고 능하지 않으면 그럴 수 있겠는가. 다만 정자가 왜적을 막는 땅인 만큼 옛날에는 어풍(禦風)으로서 이름하였으니, 대개 이찬황(李贊皇)의 주변(籌邊)의 편액의 뜻과 서로 합하지 않으므로 이에 무이(撫夷)로서 그 편액을 바꾸었으니, 어찌 그 전말을 기록하여 빛을 내어 주지 않겠는가.” 하기에 나는 대답하기를, “그렇게 하겠소.” 하였으나 그 이튿날 일에 촉망하여 영주(寧州)로 고삐를 돌릴 제, 붓을 잡지도 못한 채 달이 넘어가려는지라, 공(公)이 또 글월을 보내어 재촉하므로, 부득이 이를 써서 회답하였다. 한 정자의 흥폐는 비록 작은 일인 듯싶으나 실은 국운(國運)의 성쇠를 이어서 징험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려의 국운이 쇠퇴함을 당하여 변세의 모든 땅이 바다 도둑의 주둔한 바 되어 병화(兵火)를 겪은 뒤에 인연(人煙)이 탕진되었으니, 어찌 모든 오랑캐를 어루만지겠는가. 비록 누정(樓亭)을 세워 그 우울한 정을 펴게 하고자 하더라도 할 수가 없었더니, 우리 국가에서 험함을 시설하고 진(鎭)을 두어 그 요해지를 얻었으니, 이 성으로서 본다면 서쪽 20리 사이에

수군영(水軍營)이 있고, 서북 백 리 쯤에는 병마상(兵馬廂)이 있으며, 남으로 남포(藍浦)와 닿고, 또 그 남에는 마량(馬梁)과 비인(庇仁) 등 진(鎭)이 있어 순치(脣齒)의 형세가 이룩되었으며, 초루(譙樓)에 병기[刀斗]가 한가하고 갑졸(甲卒)이 농업에 편안한 지가 장차 백 년이나 되었고, 이 정자가 돌을(突兀)하게 그 사이에 솟아서 오늘 태평의 다스림을 드러냈으니, 무이(撫夷)로서 그 편액을 삼음이 어찌 마땅하지 않겠는가.

도둑과 오랑캐와 적자(赤子)를 의당 어루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루만지지 못한다면, 성과 보루를 수선했다 해서 어루만져지지도 않을 것이요, 곡식이 많고 군대가 정하다 해서 어루만져지기도 어려울 것이요, 문덕(文德)의 퍼짐과 회유의 술법은 묘당 위에서 이미 성산(成算)이 있을 것이니, 이 성산을 받들어 밖에 정치를 하는 자 능히 어루만지는 방법을 다하면 이 한 정자에서 얻는 것이 역시 족할 것이요, 이 정자에 올라서도 풍경에만 유혹을 받지 말고, 시주(詩酒)도 음탕하지 말며, 전야(田野)를 바라보며 그 개간할 것을 생각하고, 지황(池隍)을 바라보고는 그 완전할 것을 생각하고, 학교를 바라보며 그 흥기시킬 것을 생각하고, 장수와 나그네를 보고는 품어 줄 것을 생각하고, 늙은이나 어린이를 보고는 구휼할 것을 생각하며, 심지어는 금어(禽魚)와 초수(草樹)에 이르기까지도 그 생리를 이루게 하여 바라면 반드시 생각이 있고, 생각하면 반드시 직분을 다 한다면 덕화가 날로 퍼고, 바다물결이 더욱 일지 않고 일기(一岐) 구주의 오랑캐들이 더욱 돌아올 것이니, 이 정자를 세움이 곧 산과 바다와 더불어 그 종시(終始)를 다할 것인 바, 이는 공과 박후의 책임일 것이니, 다시금 힘을 쓰고, 또 뒷날에 이 고을의 방백(方伯)된 자에게 권하노라. 『동문선』

### ③제민당 (濟民堂)

현(縣) 북쪽 성안에 있었다.

## 5) 보령읍성의 비석군(碑石群)

비석은 9기로 주변에 흩어져 있던 것을 후대에 남문 옆 성벽 아래 한자리에 모은 것이다. 비문에 따르면 보령현과 관련된 현감·관찰사·군수 등의 공적을 기리는 것으로 각각 恤民碑 1기, 不忘碑 2기, 善政碑 5기, 頌德碑 1기이다. 각 비문의 전면에 새겨진 글씨는 다음과 같다.

縣監黃公道宏淸德恤民碑    縣監李公再春愛民善政永世不忘碑    縣監文僕德麟恤民善政碑  
 縣監李僕是鍊恤民善政碑    觀察使朴公海壽淸德善政碑    縣監李僕義臣請簡善政碑    縣監金僕濟肯永世不忘碑    縣監方僕孝涵善政碑    行郡守朴公鴻陽慕聖興學儒林頌德碑

그리고 현감 남태량비(縣監南泰良碑)는 옮겨지지 않고 청소면 정전리 세거리에 있는데, 이곳은 과거 통행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관찰사 현감의 비가 3개 있었으나, 현재는 南泰良縣監碑만 세거리 논에 있다. 영조 때 보령현감을 지낸 남태량 현감의 선정비를 보령과 결성의 주민들이 세웠다고 기록되었으며, 이수가 없는 방형의 화강암 비신이고, 비좌는 단순하게 조각한 거북비좌이다.

## 2. 남포읍성과 관아

### 1) 남포 치소의 이동

현재 보령시 남포면 읍내리에 있는 남포읍성은 세종 때 치소가 옮겨지면서 축조된 읍성이다. 원래 남포현의 치소는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 수안마을이었다. 여기에서는 고려시대의 어골문 외편 특히 관자명(官字銘) 외편과, 성문의 대형 문초석 등이 수습되고 있다. 고려말 왜구가 침입하자 진성(鎭城)을 설치하기도 하였으나, 조선 세종 때 새로운 터를 잡아 현재의 위치에 남포읍성을 축조하고 남포현의 치소로 삼게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역사편 참조)

### 2) 읍성의 축성과 규모

조선초기의 문물제도의 정비와, 중앙집권 체제의 표현이라 할 지방 행정 구획의 개편 등에 힘입어 각 관읍(官邑)의 위엄도 동시에 갖추어지게 된다. 그리하여 세종실록에 의하면 崔潤德·鄭欽之·趙末生을 번갈아 巡察使로 삼아, 충청·전라·경상도의 하삼도 沿海邑城을 순행하여 성 쌓을 터를 살피서 정하고, 築城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 이후부터 인구증가와 주민 入保에 따른 편의와 방어를 감안하여 연해안 지역에서부터 새로운 규모로 格式을 갖춘 邑城 축조가 이루어진다.

이런 과정 속에서 藍浦邑城의 축조는 세종 26년(1444)에 시작되었으나 세종 27년(1445)년에 흉년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재논의 과정을 거쳐 결국 왕명에 의하여 시행되었던 것이다. 흉년의 어려움 속에서 축성이 추진되었기에 백성들의 고통에 대하여 세종은 미안한 마음까지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보통 읍성 축조는 국가적인 사업이었던 만큼 해당 고을뿐만 아니라 인접고을의 주민들까지도 모두 참여하여 축성에 동원되었는데, 많을 경우에는 50군의 장정이 동원되기도 했다. 남포읍성에도 동벽에 ‘永同’이라

씩여진 성돌이 있어 이를 증명한다.

남포읍성의 정확한 완성 시기는 기록에 나와 있지 않으나, 보통 조선 초기에 읍성의 완성 기간이 농번기를 피하여 2~6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세종 28(1446)년 봄까지는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완성된 남포읍성의 규모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조선왕조실록 문종 1년(1451) 9월 5일(庚子)조에 나온다.

忠淸全羅慶尙道都體察使鄭芑啓慶尙道忠淸道各官城子其初不依法築之故並皆不合規式然其中仍舊各官及期改築各官隨後可築各官與退築各官等磨勘謹具以聞 . . . 忠淸道仍舊 . . . 藍浦縣邑城周二千四百七十六尺高十二尺女牆高三尺敵臺五門三有擁城女牆三百七十七城內泉二城外二里許防川鑿城引入作池貯水海子未鑿.

충청 진라 경상도의 都體察使 鄭芑이 아뢰기를, “경상도 충청도 각 고을의 성자(城子)는 당초에法式에 의하여 쌓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가 規式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격식에 맞아 그대로 둘 수 있는 곳이 있으니 충청도의 비인현, 남포현, 보령현, 해미현, 면천군, 홍주목 . . . 읍성입니다.

. . . 藍浦縣邑城은 주위가 2476척 높이가 12척 女牆의 높이는 3척이며, 敵臺가 5개소 門이 3개소 擁城이 있고 女牆이 337개이며 성안에 우물이 2개소인데 성밖 2리쯤에 있는 防川으로부터 성을 뚫고 끌어들여 못을 만들고 저수(貯水)해왔고 垓字는 아직 파지 않았습니다. . .”

이후의 모든 지리지 및 읍지의 남포읍성 상황은 세종 때 格式에 맞게 축성되었기 때문에 성의 규모가 이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다. 현재는 825m가 남아 있다.

문종실록 이후의 읍성 규모에 대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읍성은 돌로 쌓았는데 주위가 2,476척이고, 높이는 15척, 안에는 샘이 3개가 있다(邑城 石築周二千四百七十六尺 高十五尺 內有三泉)고 하였고, 『여지도서』와 『남포읍지』에는 남포읍성의 주위(둘레)는 장으로 계산하면 845장이고 척으로는 2,476척이며 보로는 950보이며, 높이는 장으로 계산하면 5장이고 척으로는 15척 보로는 6보이다. 동쪽에는 동문, 서쪽에는 서문, 남쪽에는 남문이 있으며, 각 문에는 옹성이 있고, 안에는 샘이 3개 있다. 샘의 넓이와 폭은 각 1장이라고 하여 성의 규모나 시설을 설명하고 있다.(周圍以丈計之則八百四十五丈 以尺計之則二千四百七十六尺 以步計之則九百五十步 高以丈計之則五丈 以尺計之則十五尺 以步計之則六步 東東門 西西門 南南門 各有擁城 內有三泉 各丈一丈 各廣二丈 各深一丈)

이런 점으로 볼 때 주위 2476척, 높이 12척, 적대 5개소, 여장 337개에 높이 3척,

동·서·남에 웅성을 갖춘 문, 우물 3개의 규모를 갖춘 읍성이 큰 변화 없이 보수만 하면서 조선말기까지 지속되었으며, 관아 건물은 일제시대는 면사무소, 초등학교, 헌병대 등의 건물로 사용되었고, 최근까지도 동헌 건물을 남포중학교로 사용하였다.

### 3) 읍성의 현황

현존하는 남포읍성의 성내외는 전답으로 경작되고 있으며, 성내는 남포초등학교와 민가들이 들어서 있으며, 성벽의 보존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성의 평면은 거의 정방형으로 남·서·동벽의 중앙에 문지가 있고, 성외에서 보아 좌측에 각기 1개씩의 웅성이 있다. 웅성은 동문지에 가장 잘 남아 있으며, 이곳의 웅성 규모는 높이 약3m, 폭은 4m이다. 문지의 폭은 약 6m에 달하고, 문지 좌우측 성벽의 높이는 4-5m이며, 문지와 웅성부에 사용된 석재는 일반 성벽에 사용된 석재보다 큰 돌을 쌓았으며, 군데군데 켜기돌을 박아서 축조하였다.

성벽의 4모서리에는 바깥으로 돌출된 모양의 치성(雉城)이 축조되어 있는데, 서북의 높이는 5m, 동북 치성은 3m, 남동 치성은 4m, 서남 치성은 3m이다. 치성의 길이는 5m 이고, 단부의 폭은 5m 내외로 축조되었고, 남동쪽의 치성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부가 파괴되었다. 동북치성과 동남치성은 복원된 상태이다.

읍성의 전체 길이는 825m이고, 성벽의 축조방법은 기단석을 10cm 정도 내밀게 놓은 다음 부정형의 할석(不定形割石)으로 거의 수직이 되게 외벽을 축조하였으며, 성의 내측은 내탁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성벽이 가장 잘 남아 있는 곳의 높이는 5m이고, 부정형의 할석으로 20-25단을 축조하였다. 성벽의 하부 기단 석축은 길이 1m 이상 두께 70cm 정도의 큰 돌인데, 잘 남아 있고, 이 큰 돌의 틈에 켜기돌을 끼우거나 없어서 평형을 맞추었고, 점차 위로 가면서 작은 부정형의 할석을 이용하여 안정감을 추구하는 등 조선전기에 쌓은



남포읍성 성벽



남포읍성의 복원부

읍성류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동벽의 남쪽부분에는 배수구 시설이 남아있다. 그리고 성벽 바깥쪽에 논밭으로 경작되는 평탄면이 있고, 서남쪽 부분은 성벽보다 1.5m정도 아래쪽에 평탄면이 조성되어 있어 해자가 아닌가 생각되지만 남포읍성에 해자가 있었다는 기록은 없다.

1997년 이후 몇 차례의 보수·복원공사로 인하여 남벽 일부와 동벽·북벽이 원형과 다른 모습이 되어버렸다.

#### 4) 관아시설(남포관아문)

- 지정 : 충청남도지정 유형문화재 제65호(1976년 1월 8일)

남포읍성 고지도에 의하면 읍성 내에는 동헌(東軒), 내아(內衙), 객사(客舍), 책실(冊室), 공수청(公須廳), 장청(將廳) 환창(還倉), 군기고(軍器庫), 사령청(使令廳), 작청(作廳), 토사(土司), 향청(鄉廳) 객사삼문(客舍三門) 동헌외삼문(東軒外三門) 등이 들어서 있었다. 여지도서에는 객사 9칸, 동헌 5칸, 아사(衙舍) 18칸, 향청 11칸, 작청 8칸, 현사 3칸으로 나와 있다. 그러나 현재 남아 있는 것으로는 동헌, 내삼문, 그리고 관아문인 진서루이다.

이 남포관아 유적은 ‘남포관아문(藍浦官衙門)’이라는 명칭으로 충청남도지정 유형문화재 제65호(1976년1월 8일)로 지정되어 있다.

남포현 관아의 정문으로 건립된 아문(衙門)

인 진서루(鎭西樓)는 서향으로 세워진 2층 문루형식의 건물이며, 기단 위에 장초석(長礎石)을 놓고 둥근 기둥을 세웠으며, 하층에는 삼문을 달아 현청(縣廳) 출입문으로 삼았다. 그리고 상층 기둥은 큰모접기를 하여 8각단면이 되도록 하였으며, 2층에는 누마루를 설치하고 사면에는 난간을 돌렸다. 정면3칸 측면 2칸의 겹처마 팔작지붕이다.‘鎭西樓’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관아문을 지나 동헌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내삼문은 정면 7칸 측면 1칸에 중앙 솟을대문 1칸을 중심으로 하여 좌우측에 홍살이



진서루



남포현 동헌

둘러져있고, 이어서 2칸씩의 익실(翼室)이 달려있으며, 중앙의 솟을지붕은 맞배지붕이고, 그 좌우측 익실은 홑처마 팔작지붕이다.

건물 정면에는 ‘玉山衙門’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동헌은 정면 7칸, 측면 3칸에 홑처마 팔작지붕양식이다. 정면 중앙에는 넓은 대청을 두고 좌우로는 온돌방을 두었다. 남포중학교가 초기에 교실로 사용하였다.

## 5) 남포읍성 비석군

남포읍성의 鎭西樓 안쪽 우측에 위치한다. 비석은 모두 9기로 조선시대 藍浦縣과 관련 있는 현감 군수들의 선정비로 화강암 석재로 된 방형의 비석이다. 이들 비석 가운데 제일 서쪽의 것은 마모가 심하여 비문을 알아보기 어렵지만 나머지 8기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세워져 있다.

이들 비는 각각 선정비 5기, 불망비 3기이다. 각각의 비에는 다음과 같이 각서 되어 있다.

- |                 |               |
|-----------------|---------------|
| ① 縣監朴僕履命清德善政碑,  | ② 縣監李侯 濱善政碑,  |
| ③ 縣監白公東奎善政永世不忘碑 | ④ 觀察使沈侯宜臣善政碑  |
| ⑤ 縣監宋侯秉學永世不忘碑   | ⑥ 縣監申侯鳳圭善政碑   |
| ⑦ 縣監成僕達榮永世不忘碑   | ⑧ 行郡守李僕爽宰善政碑. |

한편 고남포 지역인 웅천읍 대천리 구장터 등에도 조선시대 현감 관련 비석이 있었으나 석공장이 들어서면서 분실될 염려가 있어 최근 두룡리 도로변에 옮겨 모아 놓았다. 여기서는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조선시대 것 9기의 비석군만 기록해 둔다.

- |                  |               |
|------------------|---------------|
| ① 觀察使朴公齊純戡難恤民不忘碑 | ② 縣監南侯履完永世不忘碑 |
| ③ 縣監朴侯履命愛民善政碑    | ④ 觀察使申公櫨永世不忘碑 |
| ⑤ 縣監宋侯能圭永世不忘碑    | ⑥ 縣監韓侯文燾善政碑   |
| ⑦ 縣監李侯敬簡永世不忘碑    | ⑧ 郡守韓侯永錫正範民碑  |
| ⑨ 前參判金公閔煥慈惠碑     |               |

그리고 웅천 구장터 정자나무 아래와 주산 창암리 비선거리에는 관찰사 송정명비가 있다. 또 남포면 봉덕리 대덕굴에는 縣監李枝馨永世不忘碑가 그 후손에 의해 옮겨져 있다.

### 3. 충청수영성과 영사(營舍)

#### 1) 충청수영의 설치

충청수영은 여말선초의 왜구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태조 5년(1396년) 홍자해를 고만(高巒)의 첨사로 임명한 것이 시초가 되었다. 그러나 최초의 충청수영이 고만에 설치되었지만 얼마 후 대회이포 즉 오천으로 옮겨졌다. 충청수영이 언제부터 현재의 위치인 보령시 오천에 설치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수군도안무처치사는 보령현 서쪽 대회이포(帶回伊浦)에 머무른다> 고 한 것으로 보아 『세종실록지리지』 이전에 이미 보령 오천에 수영이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7군데는 만호가 머무른다고 기록하고 있으니 오천은 이 당시에 이미 가장 격이 높은 수영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충청수영 설치에 대하여는 역사편 참고)

#### 2) 충청수영성

- 지정 : 충청남도기념물 제9호(1976년 1월 8일)
- 위치 :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931

충청수영성은 『신증동국여지승람』 보령현 관방조에 의하면 <정덕(正德) 경오년에 비로소 돌성을 쌓았는데, 그 주위는 3,174척이며, 높이는 11척이고, 그 안에 4개의 우물과 1개의 못이 있다> 라고 기록되어 1510년(중종5)에 충청수영 관할 내의 수군진성 중 가장 빠르게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1510년 충청수영성은 이장생(李長生 1467~1522) 수사에 의해서 축성되었다.

현재의 충청수영성은 원형은 많이 파괴되어 홍예로 된 서문을 비롯하여, 토성의 흔적으로만 남아 있지만, 1,650m의 성벽 구간을 확인할 수 있다. 내륙에서 바다쪽으로 뻗어 내린 야트막한 양쪽의 산능선을 포곡식으로 연결하고 해안에 접하여 축성된 수영성은 다른 수군진성과 형태가 아주 비슷하다.

북벽 동벽 등은 산등성이를 따라 축성되었고, 서벽은 바다와 면한 지점에 축조되었으며, 이 서벽 앞은 U자형의 포구를 이루어 전형



충청수영성 서문

적인 조선시대 수군진성 모습을 하고 있다. 현재 바다와 접했던 서벽은 시가지가 조성되어 완전히 훼손되었으며, 남벽의 일부와 남문도 마을의 통행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완전히 훼손되었다. 이들 훼손된 남벽과 서벽을 제외하고 나머지 성벽들은 토성의 형태로 남아 있다. 그리고 동벽의 일부는 성벽의 바깥쪽에 계단형으로 삭토를 하여 성벽의 방어력을 높게 하였다.

한편 문지도 확인이 가능하다. 가장 잘 남아 있는 곳이 서문이다. 서문은 홍예문의 형식을 갖추었는데, 9개의 홍예용 무사석(武砂石)으로 아치를 이루었다. 문루는 없다. 문의 폭은 3.1m, 높이는 2.75m이다. 동문지는 오천-주포 간 도로의 통로로 사용되고, 동문지는 능선 위에 있는데, 마을의 주민의 이동로가 되었으며, 남문은 가장 저지(低地)에 있는데, 마을의 도로로 사용된다. 그러나 소서문(小西門)지는 1970년대 석유비축장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흔적이 없어졌다.

최근 행정 당국에 의해 서벽 일부와 북벽 일부가 복원되었으나 정확한 고증이 없이 벽돌 모양으로 가공한 석재를 사용하면서 완전히 박제된 느낌을 주고있다.

서문, 진홀청, 객사, 공해관(삼문)이 남아 있으며, 수사(水使)들의 공적비 그리고 계급장군청터비 등이 남아 있다. 군선을 정박하던 곳은 절반 이상이 매립되어 시가지화 되었고, 지금도 계속 매립 작업 중이어서 수영성 포구의 옛날 모습은 거의 사라졌다.

그런데 이 충청수영성은 그 동안 문화재명칭이 ‘오천성(鰲川城)’으로 표기되어 오다가 최근 ‘충청수영성’으로 개선되어 본래의 의미를 되찾게 되었다.



수영성 남벽

### 3) 영사(營舍) 시설

- 지정 :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36호(1991년 12월 3일)

충청수영성 내의 영사시설 중 장교청, 진홀청, 공해관을 묶어서 ‘오천현관아(鰲川縣官衙)’라는 명칭으로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36호(1991.12.3 지정)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오천현 관아라는 명칭이 잘못되었고, 장교청은 사실은 객사 건물인 것이다.

『여지도서』에 의하면 충청수영 내에는 다음과 같은 영사(營舍)가 있었다.

運籌軒(殿牌奉安 6칸), 凌虛閣(3칸), 永保亭(24칸), 拱襟堂(4칸), 梅竹堂(4칸), 觀德樓(6칸)

東軒(5칸), 衙舍(15칸), 南樓(3칸), 裨將廳(9칸), 歇廳(2칸), 官廳(20칸), 四觀亭(3칸), 軍器庫(20칸), 火藥庫(3칸), 營吏廳(10칸), 鎭撫廳(9칸), 養武庫(6칸), 營繕庫(3칸), 官奴婢廳((12칸), 虞侯衙舍(칸)28칸), 解懸庫(9칸), 蠹庫(3칸) 什物庫(15칸), 兵庫(6칸), 工庫(4칸), 侍變軍官廳(7칸), 將校廳(26칸), 使令廳(11칸), 土兵廳(11칸), 鐘閣(7칸)

이들 중 현재는 객사인 운주헌과 외삼문인 공해관, 그리고 진흥청으로 추정되는 건물 등 3개가 남아 있다.

### (1) 충청수영 객사(忠淸水營客舍)

조선시대 충청수영 안에는 수십 동의 영사(營舍)가 있었는데, 1896년 폐영과 함께 모두 소실되고 객사, 공해관의 삼문, 진흥청만 남아 있다. 본 건물은 오천초등학교 자리에서 옮겨진 충청수영 객사(客舍)이다. 수군절도사가 왕을 상징하는 전패(殿牌)를 모시고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대궐을 향해 예(禮)를 올렸으며, 중앙에서 내려오는 관리들의 숙소로도 사용되었다. 건물명은 운주헌(運籌軒)이었다. 이 건물 앞에 있는 삼문(三門)은 수군절도사가 집무하던 공해관(控海館)의 출입문 역할을 하던 문이다. 원래 객사와는 별도 건물인데 한자리에 옮겨 보존하고 있다.



충청수영 객사

그동안 이 건물은 장교청으로 알려져 왔고, 문화재 등록 명칭까지 되었으나, 원래는 객사였던 운주헌(運籌軒)이었다. 충청수영 폐영 후 오천군이 설치되면서 군청사로 사용된 건물은 삼문을 갖춘 공해관이었다. 이 공해관은 오천면 사무소 시기에 무너져서 공해관 옆에 있던 (현 오천초등학교 자리) 객사 건물인 운주헌을 무너진 공해관 자리로 옮겨서 1986년까지 오천면사무소로 사용하였다. 그러다가 1987년 오천면사무소 청사를 새로 짓고, 이 건물과 삼문을 현재의 위치로 이전, 보전하게 된 것이다. 원래 오천군 청사가 있던 공해관을 오천군지에 장교청이라고 잘못 적어놓는 바람에 옮겨온 객사도 무조건 장교청이라고 부른 데서 오랫동안 명칭의 오류를 가져온 것이다. 따라서 현재 옮겨진 위치에 있는 객사와 삼문은 원래는 별개의 건물이었고, 또한 공해관이라고 현판이 붙은 건물은 원래는 공해관의 문 역할을 하던 삼문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객사는 지붕에 큰 치미가 있었는데, 이전 과정에서 분실되었다.

객사는 정면 4칸, 측면 2칸의 겹처마 팔작지붕 양식이며, 남측에는 마루를 내어 3면을

개방하였고, 동측에는 온돌방을 두었다. 공해관이라 명칭된 삼문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솟을지붕 형식을 취하고 있다.

### (2) 충청수영 진홀청(忠淸水營賑恤廳)

진홀청은 흥년에 충청수영 관내의 빈민 구제를 담당하던 곳이었다. 충청수영 폐지 이후 민가로 쓰이다가 1994년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보존하고 있는데, 정면 5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이며, 대청 온돌방 뒷마루 부엌 등이 있다. 이 건물의 명칭은 정확하게 전해지는 것이 없어 충청수영 고지도(古地圖) 등에 나타난 건물 배치로 볼 때 진홀청으로 추정되고 있다.



충청수영 진홀청

### (3) 유격장군계공청덕비(遊擊將軍季公淸德碑)

- 지정 : 충청남도유형문화재 제159호(2000. 9. 20)
- 위치 :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661-12(오천초등학교 내)

1598년 4월에 세운 유격장군(遊擊將軍) 계금(季金)의 청덕비이다. 유격장군 계금은 중국 명나라 절강성(浙江省) 수군장(水軍將)으로 임진왜란(정유재란) 때 3,000명의 수군을 이끌고 이곳 오천으로 상륙하고 전라도로 이동하여 왜군을 토벌하였다.

비문은 장군의 덕(德)을 칭송하고 왜적을 빨리 무찌르기를 기원하였으며, 장군의 위엄을 빌어 바다에서의 안녕을 기도(祈禱)하자는 내용이다. 임진왜란 때 명나라 수군이 상륙한 지점을 알려주고, 당시의 민속을 엿볼 수 있는 비이다. 비문은 안대진(安大進)이 지었다.

비신의 높이는 104cm, 폭 48cm, 두께 14.3cm이고 재질은 대리석이다. 이수는 반원형으로 되어 있으며, 지붕받침은 생략되어 있다. 조각도 용트림 대신 구름무늬를 넣었다. 전면에는 7개의 구름무늬, 측면에는 2개의 구름무늬가 새겨져 있다. 제액(題額)은 반원형으로 만들어져 있으나, 글씨는 없다. 비문은 전면과 후면에 썩어있다.



유격장군계공청덕비

기록에 의하면 이 비석의 위치는 영관사(營官舍) 남쪽에 있었는데, 1689년 관덕루 아래로 옮겼다고 한다. 그리고 비각도 만들었다. 그리고 현재는 오천초등학교 뒤에 옮겨져 있다. 이 비의 주변에는 비각의 장초석(長礎石)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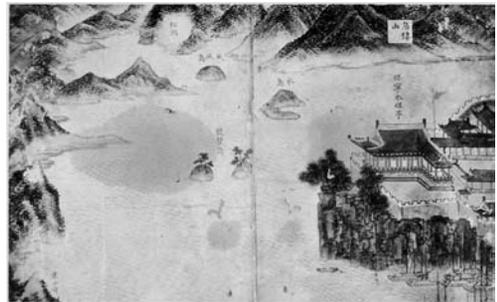
(비문내용은 문화유적 비문편 참고)

#### (4) 충청수영성 문루의 장초석(長礎石)

현재 오천초등학교 동쪽 울타리 사이에 애석으로 된 큰 돌기둥 2개가 있다. 과거 오천초등학교의 교문으로 사용된 듯 교문처럼 서 있다. 그리고 똑같은 돌기둥이 오천면사무소 뒤 숙직실 앞에 하나는 세워진 채, 다른 하나는 넘어진 채 있다. 오천면 청사의 정문 기둥으로 사용된 듯 ‘보령군오천면사무소’라고 써어 있다. 수영성 남문의 장초석으로 추측되는 유물들이다. 크기로 보아 보령읍성의 해산루보다 크고 웅장한 문루였음을 알 수 있다.

#### (5) 영보정(永保亭)

수영성 내에는 많은 영사 건물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영보정이라는 정자가 있어서 천하명승으로 알려져 있었고, 유명 관료문인들이 방문하여 많은 시문을 남긴 호서의 절승이었다.



영보정도

임진왜란 때 백사 이항복이 세자인 광해군을 모시고 홍주에 머무르고 있을 때 광해군이 수영에서 머무르고 싶다고 하자 이항복

이 수영을 답사하고 영보정의 뛰어난 경치를 보고 이로 인하여 세자가 방탕에 빠질까 염려하여 불충함을 무릅쓰고 수영에 머무르는 것을 막았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다.

이 영보정은 1504년 수사 함천군 이량(咸川君 李良)이 처음 축조했고, 연헌 이의무(李宜茂)가 「영보정기(永保亭記)」를 지었다. 이어 1574년 수사 민진익(閔鎭翼) 등이 보수하면서 지속되다가 수영 폐지와 함께 없어졌다.

(영보정기 및 영보정사적비는 비문편 참고)

#### 4) 충청수영성내의 비석군(碑石群)

○ 書記朴啓榮永世不忘碑

○ 水軍節度使朴公之壙撫恤軍卒善政碑

- 水軍節度使元公翻淸德善政碑
- 行水軍節度使全公百祿永世不忘碑
- 水軍節度使趙公存一永世不忘碑
- 觀察使金公炳始永世不忘碑
- 水軍節度使柳公濬淸德善政碑
- 行郡守金公永基永世不忘碑
- 仁川監理河公相驥永世不忘碑
- 水軍節度使尹公宅鼎淸德善政碑
- 水軍節度使申公光夏撫恤士卒淸德善政碑
- 水軍節度使李公義翼永思碑
- 行郡守朴公濟璟永世不忘碑
- 行水軍節度使李英淸德撫恤軍卒碑
- 御使洪公遠謨永世不忘碑
- 水軍節度使尹公喜用淸德善政碑
- 觀察使李公乾夏永世不忘碑
- 行水軍節度使柳公星樞淸德善政永思碑
- 度支大臣沈公相薰永世不忘碑
- 水軍節度使金公洙淸德善政永世不忘碑
- 行水軍節度使申景澄撫恤軍卒碑
- 行水軍節度使李公行儉淸德善政碑
- 水軍節度使兼都護府使李公鳳九去思碑

그리고 최근에 세운 비로는

- 忠淸水使加平李公長生始築水營城永世不忘碑
- 忠淸水使咸平李良將軍永保亭建立事蹟碑가 있다.

## 4. 구마량진성(舊馬梁鎭城)

- 위치 : 보령시 웅천읍 황교리 구진 마을

### 1) 마량진의 위치

조선시대 중기 충청수영 휘하에는 소근포, 당진포, 파지포, 마량진, 장암진이 있었다. 이 중 마량진은 보령시 웅천읍 소황리 구진(광암) 마을에 있던 첨사영으로, 장항의 서천포만호영을 지휘하면서 충청수영 관내의 남부 지역인 현재의 보령시 남부해안과 서천군 지역 해안 방어와 조운선 안내를 담당할 수군기지였다.

마량진은 조선초기에는 보령시 웅천읍 황교리 광암에 있었고, 조선후기에는 서천군 서면 마량리에 옮겨져 설치되었다. 마량진이 처음 설치된 곳은 현재의 웅천읍 황교리 구진(광암) 마을인 웅천천 하구와 바다가 만나는 웅천만구(熊川灣口) 지역이다.

남포 마량진이 바다에서 웅천천 하구의 만구를 따라 내륙쪽으로 약간 들어온 곳에 위치한 관계로, 좁더 바다 쪽의 경계를 위하여 만구 건너편의 도둔곶에 분병수지(分兵戍地)를 설치하여 마량진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도둔곶은 현재 충남 서천군 서면 도둔리이다.

## 2) 마량진의 이설(移設)

백제시대 이래로 웅천천 하구가 대외통로의 요충지이면서 왜구의 빈번한 침입 때문에 웅천천 하구의 보령시 웅천읍 황교리 광암에 설치되었던 마량진은 입지의 불편성으로 인하여 성종 때부터 이전 논의가 등장한다.

『조선왕조실록』 성종 21년(1490년) 9월 28일 정축조에

도순찰사(都巡察使) 성건(成健)이 복명(復命)하고 서계(書啓)하기를, “남포(藍浦) 땅의 마량(馬梁)에 정박(碇泊)한 병선(兵船)은 조수(潮水)가 차면 뜨고, 조수가 물러가면 물에 있어 위급(危急)한 때에 쓰기는 어려우나, 적선(賊船)도 또한 반드시 조수를 타고서 오게 되니, 이 때에 우리도 또한 응변(應變)할 만합니다. 또 그 지역은 산이 둘러 있고 물이 넓어서 배를 감추어 둘 만합니다. 도둔곶[都菴串]은 비록 적로(賊路)의 요충(要衝)이라 하더라도 배를 정박하는 곳이 얕게 드러나 조수가 물러가면 배는 마땅히 물에 있게 되니, 마량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오나 마량은 본시 긴요한 곳이니, 진실로 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옮길 수 없으므로, 그전대로 둬서 편하겠습니다. 도둔곶도 또한 방비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으로 이전에 조전소(助戰所)라고 일컫고, 마량 군관(馬梁軍官) 1인이 병선 1척(隻)과 수군 30명을 거느리고 나누어 방비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지 병선 1척(隻)만으로 요해지(要害地)를 수비하기란 심히 고단(孤單)하니, 모름지기 마량진(馬梁鎭)의 소맹선(小猛船) 2척(隻)과 수군 60명을 더 보내어 방어하도록 하소서.

이와 같이 마량진 이전 논의가 있게 된 것은 서해안의 특징인 조수 간만의 차이로 인한 입지의 불편성이었다. 마량진의 위치는 육지에서 뺀어온 산줄기에 형성된 웅천천 하구의 88m의 야산이 바다와 면한 지점에 있었는데, 이곳은 강과 바다가 만나는 만구(灣口)여서 다른 곳보다도 간석지가 넓게 분되어 있다. 그리하여 최대 썰물 시에는 배를 정박시키는 곳의 바닥이 드러나게 되며, 이 때 빨의 가운데에 겨우 수심 0.2~0.4m의 물길만이 열릴 뿐이다.

이러한 지형이어서 현재는 그 하구가 간척되어 물으로 변하였다. 물론 밀물이 되면 강물과 어울려 완전한 바다를 이루고 또 진 앞에는 만구의 중심부로 내민 ‘과녁쭉불’로 불리는 한 줄기의 조그만 산등성이가 있어 천혜의 방과제 역할을 하여 어떤 폭풍에도 절대 안전한 곳이 된다. 그러나 강 하구에 넓게 형성된 빨은 자주 불편함을 노출하면서 진의 이전 논의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가 결국 조선후기 효종 때에 이르러 마량진은 건너편의 비인현 관내인 도둔곶 끝단으로 옮겨진다.

『조선왕조실록』 효종 6년 11월 7일 정해조에

충청도 비인현(庇仁縣)의(비인현은 남포현의 오기임-필자 주) 마량진(馬梁鎭)을 도도(都島)에 옮겼다. 조정이 수사 김한문(金漢文)의 요청을 따른 것으로, 구진(舊鎭)이 배를 정박하는 데 불편했기 때문이다.

결국 배를 정박해 두는 데 불편하다는 이유로 옮겨졌는데, 이때는 마량진이 요충지로서의 기능보다는 빨리 인한 불편성이 더 부각되어 결국은 옮겨진 것이다.

이러한 불편성뿐만 아니라 조선후기의 정세변화도 마량진 이설에 크게 작용하였던 것이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조선왕조는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에 따라 왜적에 대한 경계는 약화되고, 그 대신 대륙의 청나라와의 긴장관계가 조성되고 이에 대한 경계가 강화되면서 수도권 방어 중심의 국방 강화 체제를 구축한다. 그리하여 육군은 수도권 주변에 5군영이 설치되고, 수군은 인조 11년(1633) 경기도 교동에 삼도수군통어영을 설치하고 경기·황해·충청도의 수군을 통제하였다

임진왜란 당시 왜적 방어를 위한 삼도수군통제영에 편입되었던 충청수영이 양란 이후 수도권 방어를 위한 삼도수군통어영에 편입된 사실은 남방의 왜구 방어보다는 수도권 방어 임무에 무게가 주어진 것이다. 따라서 왜구 침입로에 위치하여 내륙 요충으로 들어가는 왜구를 방어하는 기능을 담당하던 남포현 마량진의 위치는 중국과의 긴장관계 속에서 수도권 구원(救援)이라는 기능을 수행할 때는 요충지로서의 중요성은 감소될 수밖에 없다.

도둔곳 끝단인 현재의 서천군 서면 마량리에 마량진이 옮겨지면서 이 곳이 마량진으로 불리고, 원래의 마량진이었던 보령시 웅천읍 황교리는 구진(舊鎭)으로 불리면서 오늘날 까지도 그 지명이 계속되고 있다.

### 3) 마량진성

조선초기 전국 수군기지 축성 정책에 따라 마량진도 중종 5년(1510)에 축성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남포현 관방조에 <마량진은 본현의 서쪽 33리 지점에 있는데 우도수군첨절제사의 영문이 있으며, 그의 소관은 서천포이다. 첨절제사 1명이 있다. 정덕(正德) 5년 경오년에 비로소 돌로 성을 쌓았는데 주위가 1,371척에 높이는 9척이며 그 안에 우물하나가 있다> 라고 하였다. 이렇게 1510년 축성된 마량진성은 웅천천 하구의 88m 야산의 남사면을 에워싸고, 내탁의 방식을 사용했으며, 남벽은 바닷물에 접해서

축조한 삼태기 모양의 조선전기 전형적인 수군진성이다.

다른 수군진성에 비해 산의 높기와 경사도가 가장 높아 성의 내부가 가파른 점이 특징이다. 현재 길이는 약 660m 정도로 전 구간의 흔적이 남아 있다. 특히 정상부의 북벽은 산정상이라서 파괴의 손길이 덜 미치어 치성과 함께 석축이 잘 남아 있으며, 동벽과 서벽의 아랫부분은 토성의 형태로만 남아 있는데, 최근의 웅천천 제방공사 때에 배를 대고 돌을 날라다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다와 접하는 남벽은 기반부의 석축만이 남아 있지만 그 흔적을 파악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이 부분은 민가가 오랫동안 들어선 관계로 많이 파괴되었다. 그리고 동문지와 웅성, 서문지와 웅성 그리고 성내의 건물지로 추정되는 평탄지의 흔적이 잘 남아 있다. 현재 성의 내부에는 장수황씨의 민묘가 많이 들어서 있다.

성의 하단부에서 정상부를 연결하는 동벽에는 그 바깥에 해자를 만들어 성벽의 높이를 높게 만듦으로써 방어력을 강화하고 있다.

마량진성의 포구는 성벽(남벽) 앞에 형성되었는데, 마량진성이 만들어진 산줄기에서 걸가지로 뻗어내려 만의 중심부로 향하여 돌출해 들어간 높이 약 10m 정도의 ‘과녁쪽 불’로 불리는 작은 산줄기가 외양 쪽을 막고 있어 U자형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포구는 이 자연적 방파제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

1655년 이설된 서천 마량리의 마량진은 성벽을 축조하지 않고 영사(營舍)만을 건립하고 수군기지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현재 마량리에서는 성벽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다만 영사 건물의 흔적인 와편(瓦片)만이 발견될 뿐이다.

현재 서천군 서면에 있는 마량진은 성벽이 없는 관계로 역사적 사실을 알리는 안내판 하나도 없이 수군진이 있었다는 것보다는 당진의 왜목 마을과 함께 서해안 해돋이 관광의 명소로만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보령 웅천의 구마량진은 성벽이 남아 있으나, 그 위치조차 아는 이가 별로 없으며, 단지 1999년 웅천읍에서 세운 안내기 하나만이 무성한 대나무 숲에 숨어 있을 뿐이다.



구마량진성 성벽



구마량진성 성벽

## 5. 봉수대

보령 지역은 조선시대 보령현과 남포현의 2개 행정구역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이들 보령현과 남포현을 합하고 홍주목에 속했던 홍양곶 지역까지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지역이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홍주목 소속이던 보령 앞바다의 여러 개의 도서(島嶼)지역까지도 보령지역에 편입되었다. 이러한 관계로 현재 보령지역의 봉수대는 육지봉수와 섬 지역의 도서봉수대 유적이 남아 있다.

보령지역의 봉수는 웅천천 하구를 중심으로 한 남포진(藍浦鎭) 설치, 보령시 오천면에 충청수군절도사영이 있었던 관계로 다른 어느 곳보다도 해안 방어의 중심지였다는 것과 관련하여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로 인하여 현재 파악된 봉수 유적은 12개 처(處)에 이른다. 그리고 현재는 전북 군산의 행정 구역이 된 어청도봉수까지 합하면 13개 처가 된다. 아마도 한 지역에서 이러한 봉수 유적은 흔치 않은 일일 것이다. 8개 처는 우리나라 직봉(直烽) 제5거(炬) 중 충청 해안을 지나는 간봉(間烽) 노선 봉수의 일부이며, 5개 처는 충청수영이 外洋 방어와 관련하여 섬 지역에 설치하여 운영한 권설봉수(權設烽燧)이다.

(보령지역 봉수선로 연결에 대하여는 역사편 참고)

### 1) 육지봉수(연변봉수)

#### (1) 홍양곶 봉수대

『세종실록지리지』 홍주목조에

봉화가 2곳이니, 홍양 산성(興陽山城)과 【주(州) 서남쪽에 있는데, 동쪽으로 보령(保寧) 조침산(助侵山)에, 북쪽으로 결성(結城) 고산(高山)에 응한다.】 라고 기록된 봉수이다. 이 봉수는 조선말기까지 위치나 전보관계가 변함없이 그대로 지속된다.

보령시 천북면 사호리와 장은리의 경계에 있는 봉화산 정상(202.6m)에 위치한다. 천북면 하만리, 사호리, 장은리 등지에서 오를 수 있다.

이 봉수대는 조선시대 보령시 주교면 송학리에 있는 조침산 봉수대에서 받아 홍성군 결성면 고산 봉수대로 전하는 봉수대였다. 조침산 봉수대와는 도상거리로 12km, 고산 봉수대와는 6.75km이다.

봉수대는 산 정상에 호를 두르고 가운데가 좀 높게 만들어져 있고, 주변에 조선시대 기왓장이 흩어져 있었다. 기왓장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봉수군이 거주하던 시설이나

연료를 저장하던 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0년 중장비를 동원, 평탄 작업을 하여 유구는 완전히 파괴되었다.

현재는 산 정상에 동서 22m, 남북 23.5m의 평지가 있고 잔디가 심어져 있다. 옥미봉 봉수대나 조침산 봉수대처럼 원통모양의 봉수대를 만들 예정이었으나 지역문화단체인 보령문화연구회의 잘못된 복원이라는 지적에 중단하고 잔디를 심어 놓았다. 최근 정자를 지었다.

## (2) 조침산 봉수대

『세종실록지리』 보령현조에

봉화가 1곳이니, 조침산(助侵山)이다. 【현의 서쪽에 있는데, 남쪽으로 남포(藍浦) 여도점(余道帖)에, 서쪽으로 홍주(洪州) 임내인 흥양(興陽)의 고산(高山)에 응한다.】 라고 기록된 봉수이다. 이 봉수대는 위치는 변함이 없이 지속되고, 전보관계만 조선후기에는 여도점에서 옥미봉으로 변화를 가져온다.

보령시 주교면 송학리와 은포리 사이에 있는 봉대산 정상부 남쪽 봉우리에 위치한다. 봉수대 바로 북쪽에 삼각점이 있는데 해발고도는 228.9m이다. 주교면 소재지인 주교마을에서 보령화력 발전소로 통하는 도로의 ‘옥고개’에서 북쪽으로 난 능선을 따라 오르면 된다. 송학초등학교의 뒤쪽이다.

이 봉수대는 남쪽의 옥미봉 봉수대에서 반야 북쪽 천북면 사호리 흥양곶 봉수대에 전하였다. 옥미봉 봉수대와는 도상거리로 14km, 흥양곶 봉수대와는 12km 떨어져 있다.

이 봉수대도 2000년 복원 명분으로 훼손되었으나 중장비가 올라오지 않아 기초부분은 상당히 원형대로 남아 있다.

봉수대의 최 외곽에는 폭 2m, 깊이 1m 정도의 웅덩이가 있다. 이 웅덩이는 남쪽 능선과 연결되는 부분만 있고 동쪽과 서쪽 급경사지에는 삭토를 해서 쌓은 평탄지와 급경사지만 있다. 이어서 2m 정도의 급경사지가 있으며 동서 8.5m 남북 10.5m, 높이 1m 정도의 타원형 축대가 있다. 이 축대는 2000년에 쌓은 것으로 일부 구간은 원형이고 일부 구간은 다시 쌓은 것이다. 이 축대 위에 직경 4m의 원통 모양 돌기둥을 쌓고 아궁이까지 만들어 놓았다. 이것은 모두 2000년에 만든 것이다. 당시 발굴이나 고증 작업 없이 추정으로만 만든 것이다. 원형과는 거리가 멀다.

봉수대의 북쪽에는 넓은 평지가 있어 봉수대의 지원시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 (3) 옥미봉 봉수대

『여지도서』 남포현 봉수조에

옥미봉 봉수(玉眉峰烽燧)는 남쪽으로는 비인현 칠지산 봉수에 응하고 북쪽으로는 보령현 조침산 봉수에 응한다 라고 기록된 봉수이다. 이 옥미봉 봉수는 조선전기에는 없다가 18세기에 신설된 봉수대이다.

보령시 남포면 사현리와 웅천읍 두룡리·수부리의 접경에 있는 잔미산의 정상에 있는 봉수대이다. 해발고도는 416.8m이다. 21호 국도의 이어니재 남쪽 오석공방 옆으로 난 길을 따라 산 능선을 타고 오른다. 이 봉수대는 비인 칠지산 봉수대에서 받아 주교면 조침산 봉수대에 전하였다. 칠지산과 조침산과의 직선 거리는 도상거리로 모두 14km이다.

옥미봉 봉수대 주변에는 서쪽으로 2.2km 떨어진 남포면 신흥리 봉산 봉수대 터, 서남쪽으로 6.5km 떨어진 웅천읍 죽청리 봉오재 봉수대 터, 9.25km 떨어진 웅천읍 소황리 통달산 봉수대 터가 있으며, 남쪽으로 2.2km 떨어진 곳에는 옛 봉수대지로 보이는 대천리산성이 있다. 봉수대는 삼각점이 있는 산 정상에 있다. 이곳에서 남쪽으로 104m 떨어진 곳에는 돌담장이 남아 있다.

봉수대는 산 정상에 능선을 따라 남북방향으로 만들었는데 뚜렷하지는 않지만 5개의 봉대가 보인다. 남쪽에 있는 봉대가 가장 크고 뚜렷한데, 둘로 직경 11m 정도의 원형 축대를 만들고 가운데에 봉돈을 만들었다. 최근까지 흔적이 뚜렷하였으나 2000년 보령시에서 봉수대를 복원한다고 완전히 파괴하고 새로 굴뚝처럼 만들었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은 고증을 거친 것도 아니고 유구를 고려해서 쌓은 것도 아니다. 다만 기초가 되는 축대의 대부분은 원형이다.

남쪽 봉돈 북쪽으로 4개의 봉돈 흔적이 보인다. 이것은 모두 직경 2m 정도이고 1~2m 간격으로 있다. 이것들은 축대도 없고 산 능선 위에 원형으로 1줄의 돌을 쌓은 것에 불과하다.

남쪽 축대 남쪽 4m 지점까지는 호를 만들었고, 호 밖에는 담의 흔적이 있고 문지(門址)도 보인다. 문지의 폭은 180cm이다. 문지의 동쪽에는 폭 120cm, 길이 400cm 정도의 돌담 흔적이 있다. 축대의 동쪽과 서쪽 급경사지는 삭토하여 내려쌓아 평탄지와 급경사지를 만들어 방어에 이용하였다.

봉수대지 남쪽 104m 지점의 평탄지에는 24m×17m 정도의 타원형 돌담 흔적이 있다. 돌담의 폭은 150cm, 높이는 남아 있는 것이 약 130cm 정도이다. 이 돌담 동쪽에는 평탄지가 있고 주변은 온통 신하대로 덮여 있다. 이곳은 봉수대의 연료를 저장했던 곳으로 보이고 동쪽의 평탄지는 건물지이고 신하대는 건물지 주변에 방풍림으로 심었던 것으로 보인다.

#### (4) 등경산 봉수대

『세종실록지리지』 남포현조에

봉화가 2곳이니, 현의 서쪽 덕산(德山)과 【남쪽으로 비인(庇仁) 칠지(漆枝)에, 북쪽으로 본군의 여도점(余道帖)에 응한다.】 현의 북쪽 여도점(余道帖)이다. 【북쪽으로 보령(保寧) 조침산(助侵山)에 응한다.】 에 나오는 여도점 봉수로 추정되는 곳이다. 여도점봉수는 조선후기에는 폐지된다.

보령시 남포면 소송리 소뱅이 마을과 제석리 사이에 있는 등경산 정상(해발 180.2m)에 있는 봉수대이다. 그러나 옛 기록은 확인할 수 없다. 봉수대 주변은 석성(石城)으로 둘러져 있어 봉수대가 있는 봉우리를 마을에서는 ‘태봉’이라고 부른다. 제석리, 소송리에서 오르는 길도 있지만, 남포면 봉덕리에서 제석리로 넘어가는 고개의 꼭대기에서 오르면 편리하게 오를 수 있다.

봉수대는 산 정상부에 있는데, 석축으로 7m×8.5m 정도의 원형 축대를 쌓고 주변은 1.5m~2m 정도의 도랑을 둘러었으며 도랑 밖으로 1.5m~2m 정도의 돌담을 쌓았다. 돌담의 높은 곳은 약 2m 쯤 된다. 그 뒤로 1.5m~2.5m의 도랑을 다시 둘러었다. 이 도랑 밖으로는 폭 1m~2m의 둑을 쌓았다. 봉수대의 동쪽과 서쪽은 도랑이 메워져 출입할 수 있게 되었다.

봉수대의 동쪽에는 능선을 기준으로 북쪽과 남쪽에 직경 10여 m의 평탄지가 있고 서쪽에도 남북으로 비슷한 평탄지가 있어 봉수대를 지원하던 시설이 있었던 곳으로 보인다.

봉수대의 주변에는 석성의 흔적이 뚜렷하다. 모두 무너져 있지만 돌로 덮여 있어 나무가 자라지 않아 멀리서도 성의 흔적을 뚜렷이 볼 수 있다. 성의 남북 폭은 82m, 동서 폭은 103m 정도이다(돌무더기 상부 기준).

마을 사람들에 의하면, 20여 년 전 주민이 토끼를 기른다고 봉수대를 훼손했다고 한다. 석축 부분 중 일부는 토끼를 기르기 위해 쌓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석성 주변에서는 파도무늬 기와편, 백자편, 시루편 등이 발견된다.

옥미봉 봉수대와는 5.1km, 웅천읍 죽청리 봉오재 봉수대와는 9.4km, 신흥리 봉산 봉수대와는 5km, 주교면 조침산 봉수대와는 8.9km, 통달산 봉수대와는 12.9km 떨어져 있다.

#### (5) 신흥리 봉산 봉수대

이 봉수대는 기록에서 찾아볼 수 없이 터만 남아 있다. 보령시 남포면 신흥리 봉촌 마을과 웅천읍 두룡리 두루니 양지뜸 마을 사이의 봉산 산봉우리(해발 277.8m)에 있는 봉수대이다. 기록은 확인할 수 없다. 봉촌이라는 지명이 남포면 신흥리에 있어 남포면

신흥리 봉촌 마을에서 관리했을 것으로 보인다.

봉수대에 오르는 길은 웅천읍 두룡리 원골에서 남포면 신흥리로 넘어가는 고개의 꼭대기에서 서남쪽으로 능선을 따라 오르는 길과, 웅천읍 두루니 마을에서 남포면 양기리 곡촌으로 넘어가는 고개에서 동북쪽으로 능선을 따라 오르는 길이 있다.

봉수대는 산 정상에 있는데, 가운데는 직경 약 7m의 평탄 대지이고 대지 주변 약 3m 폭으로 경사지가 있으며, 이어서 2m 내외의 평지로 둘러져 있다. 그 밖은 폭 3m 정도의 호가 파여 있고 최 외곽에는 폭 3m 정도의 둑이 쌓여 있다. 가운데의 평탄 대지는 호의 바닥보다 약 2.5m 높다.

석축은 보이지 않고 모두 토축이다. 주변에서 기왓장이나 토기편은 발견되지 않는다.

옥미봉 봉수대와는 2.2km, 등경산 봉수대와는 5km, 죽청리 덕산 봉수대와는 5km 떨어져 있다.

## (6) 덕산 봉수대

『세종실록지리지』 남포현조에

봉화가 2곳이니, 현의 서쪽 덕산(德山)과 【남쪽으로 비인(庇仁) 칠지(漆枝)에, 북쪽으로 본군의 여도점(余道帖)에 응한다.】 현의 북쪽 여도점(余道帖)이다. 【북쪽으로 보령(保寧) 조침산(助侵山)에 응한다】 라고 기록된 봉수이다. 16세기에 『신증동국여지승람』 이후부터는 기록에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후에는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웅천읍 죽청리 봉오재 마을과 독산리 참새굴, 관당리 윗간드리 마을 사이에 있는 덕산봉 정상(해발 100m)에 있는 봉수대이다. 주변에서 가장 높은 곳이기 때문에 서해바다가 한눈에 바라보이는 곳이고, 봉오재 마을과는 고도차가 65m에 불과하여 관리하기에 편리했을 것으로 보인다.

오르는 길은 봉오재 마을에서 능선을 타고 오르거나, 큰 봉오굴에서 직선으로 오르는 길이 있다. 봉수대는 평탄한 정상부의 가운데에 있는데, 직경 6m의 원형 토축 대지 주변에 큰 돌들이 놓여져 있다. 이 돌들은 원래 봉수대 주변에 놓였던 것인데 토양이 침식되어 노출된 것 같다. 봉수대의 중심에서 동북쪽으로 8m 떨어진 곳에도 일렬로 7개의 돌이 놓여 있는데 이 돌도 봉수대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봉수대 중심에서 서남쪽으로 17m 떨어진 곳에 희미하게 호의 흔적이 있어 봉수대 주변을 호로 둘러쌌음을 알 수 있다. 호 바닥에서 봉수대 토축 대지까지의 고도차는 2m 정도이다. 주변에서 기와편이나 토기편은 발견되지 않는다.

남포 등경산 봉수대와의 거리는 9.4km, 옥미봉 봉수대와의 거리는 6.5km, 신흥리 봉산

봉수대와의 거리는 5km, 통달산 봉수대와의 거리는 3.9km이다.

### (7) 통달산 봉수대

『신증동국여지승람』 남포현 봉수조에

통달산 봉수(通達山烽燧)는 남쪽으로는 비인현 칠지산과 호응하고, 북쪽으로는 여도점(餘道帖)과 호응한다. 여도점 봉수는 현 북쪽 8리에 있다. 서쪽으로는 보령현 조침산(助侵山)과 호응하고, 남쪽으로는 통달산(通達山)과 호응한다라고 기록된 봉수다. 이 봉수는 세종실록지리에는 없다가 이 당시 덕산봉수 대신에 신설되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는 폐지되고 옥미봉 봉수대가 대신했다.

보령시 웅천읍 소항리 통달산 정상(해발 182.8m)에 있는 봉수대이다. 바로 해안에 인접해 있으면서 높기 때문에 주변 바다가 한눈으로 내려다보인다. 이 봉수대는 토진곶 목장성과 인접되어 있는데, 목장성이 봉수대지 바로 남쪽을 지난다. 소항리 장안마을에서 강릉최씨 묘지로 통하는 길로 올라와 토진곶 목장성을 따라 오른다.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곳에는 웅덩이가 파여 있었는데 매우고 묘를 썼다고 한다. 봉수대지는 돌출한 대지를 이루는데 이곳은 웅덩이었다고 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아마도 오천 영보리 망해정 봉수대지처럼 한말에 포대를 조성하기 위해 웅덩이를 팠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는 묘가 들어서 있고 묘 뒤로 약간 돌출한 부분이 있어 옛 봉수대지의 일부일 것으로 추측된다. 웅천읍 죽청리 덕산봉 봉수대와는 3.9km, 옥미봉 봉수대와는 9.4km, 비인 칠지산 봉수대와는 5.6km 떨어져 있다.

### (8) 대천리산성 봉수대

이 봉수대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이 터만 남아 있다. 보령시 웅천읍 대천리와 두룡리 사이에 있는 잔미산 정상(해발 367.9m)에 있는 봉수대이다. 웅천읍 대천리 철길 건널목에서 잔미산 능선을 따라 오르면 만난다. 봉화대의 주변은 석성으로 둘러 있는데 남북 길이 약 250m, 동서 길이 약 70m이다. 성의 북·서·남쪽은 성벽이 무너져 형성된 돌무더기가 넓게 분포하고, 동쪽은 급경사를 이용하여 석축한 흔적이 뚜렷하다. 동쪽 성벽 위로는 길이 나 있다. 북쪽의 치 일부가 남아 있고, 남쪽 성문지에도 다량의 돌더미가 있는 것으로 보아 성문을 보호하는 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봉수대가 있었던 곳은 성 안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로 보인다. 현재는 돌무더기가 남아 있고, 민묘가 들어서 있다. 봉수대가 있던 곳 남쪽에는 여러 단의 평지가 있는데, 기와

조각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건물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기와는 대부분 고려시대 어골 문이나 격자문 기와이다. 대천리 산성은 산 정상 부분의 극히 좁은 지역을 둘러싼 것으로 보아 봉수대를 보호하기 위한 성으로 생각된다.

고려시대에는 남포현의 치소가 대천리산성 동쪽 약 1.5km 떨어진 웅천읍 수부리 수안 마을에 있었으므로, 이곳은 수안 마을에 남포현의 치소가 있을 때 봉수대의 기능을 하다가 치소의 이동으로 폐쇄되고 2.2km 북쪽에 있는 옥미봉 봉수대가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북쪽에 있는 옥미봉 봉수대와는 2.2km, 남쪽에 있는 비인 칠지산 봉수대와는 12km정도 떨어져 있다.

## 2) 도서(島嶼)지역의 권설봉수(權設烽燧)

### (1) 어청도 봉수대

전북 군산시에서 배를 타고 서쪽으로 3시간쯤 가면 어청도(於淸島)에 이른다. 어청도는 원래 충청도의 홍주목에 속해 있었고, 1901년 오천군이 생기면서 충청도의 오천군에 편입되었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전라북도에 속하게 되었다.

어청도에는 충청수영으로 통하는 첫 봉수대가 있었다. 어청도→외연도→녹도→원산도→오천면 영보리 망해정 봉수대를 통하여 충청수영에 신호를 전하였다. 외연도 봉수대와는 19km 떨어져 있다.

봉수대의 위치는 어청도의 중심 산줄기인 서쪽 산능선의 중앙에 있다. 이곳은 현재 해군 부대의 안쪽인데 통신시설과 레이더 시설의 가운데에 위치한다. 해발고도는 205m 내외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은 현재 레이더가 있는 곳보다는 좀 낮은 곳이지만 어청도 북쪽의 낮은 산지 너머로 외연도가 한눈에 바라보이는 곳이다.

봉수대는 우선 능선의 경사부분에 1m 정도의 축대를 쌓고 평탄지를 만든 다음 지름 5m, 높이 2m, 둘레 18.2m의 원형기둥 모양으로 자연석을 쌓고, 가운데는 흙으로 채웠다. 오르내리는 계단은 남쪽에 나 있는데 지금도 오르내리는 데 불편이 없다.

남쪽의 평탄지에는 원형(지름 3m)으로 돌을 둘러놓은 곳이 보인다. 아마도 연료를



어청도봉수대

저장했을 것으로 보인다.

봉수대의 중앙부는 약 50cm 정도 낮게 하고 장작을 쌓아 놓았다. 2000년에 해군 부대에서 안내판을 세운 것으로 보아, 당시 중앙부를 훼손하고 장작을 놓은 것으로 보인다.

### (2) 외연도 봉수대

전라북도 옥구군 어청도에서 받아 보령시 오천면 녹도리 녹도 봉수대에 전해주는 봉수대이다. 어청도 봉수대와의 거리는 16.0km, 녹도 봉수대와의 거리는 16.25km이다. 외연도 서쪽에 있는 산봉우리인 봉화산 정상(해발 273m)에 위치한다.



외연도봉수대

봉수대는 폭 7.8m, 둘레 24.5m의 원형으로 높이는 북쪽 부분이 130~150cm, 남쪽 부분이 180~200cm이다. 모두 가공하지 않은 자연석으로 쌓았는데 중심 부분이 낮다. 문은 북쪽 방향으로 나 있다. 문의 폭은 1m 정도이다.

옛날 당제 지낼 때 이곳에서도 제를 올렸다고 하며, 일제시대까지도 이곳에 올라 다른 섬에서 봉화불이 올라오는지 관찰했다고 한다.

### (3) 녹도 봉수대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에서 받아 오천면 원산도리 오봉산 봉수대로 전해주는 봉수대이다. 외연도 봉수대와의 거리는 16.25km, 원산도 봉수대와의 거리는 16.9km이다. 청파초등학교 녹도 분교 바로 뒤에 있는 봉우리(해발 90여 m)에 있다.



녹도봉수대

봉수대는 2중 구조로 되어 있다. 내부에는 동서 7.6m, 남북 9.6m, 둘레 27m 정도의 원형 단을 만들어 봉수대를 축조하였다. 높이는 가장 높은 곳이 180cm이다. 출입문은 북동쪽에 나 있는데 폭은 1.2m 정도이며 밖으로 돌출되어 있다. 봉수대의 중심부분은 지름 220cm 폭으로 흙으로 되어 있고 그 주변은 100cm폭으로 직경 10cm 정도의 둥근 자갈이 깔려 있다.

봉수대 밖으로 3~4m 떨어져 석축의 담장이 둘러져 있다. 봉수대를 만든 돌은 모두 다듬지 않은 자연석이다.

봉수대의 서남쪽 6m 떨어진 곳에는 돌로 구획된 5.5m×4.8m 크기의 평평한 공간이 있어 연료를 저장한 공간으로 보인다.

봉수대 주변에는 꾸지뽕나무, 팽나무, 굴거리나무 등이 울창하다.

#### (4) 원산도 봉수대

녹도 봉수대에서 반야 오천면 영보리 망해정 봉수대로 전하던 봉수대이다.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진촌(鎭村) 마을 서쪽 산봉우리에 있다. 이곳에서 녹도 봉수대까지는 16.9km, 영보리 망해정 봉수대까지는 12.15km이다.

진촌 마을은 충청수영의 우후(虞侯)가 근무 하던 원산진이 있던 곳이다. 진촌 마을의 서쪽 언덕너머에 ‘관가’라고 불리는 옛 진영(鎭營)이 있던 곳이 있고 이곳 북서쪽 봉우리에 봉수대가 있다.

봉수대는 산봉우리의 정상(117.9m)에 있는데 동서 지름 730cm, 남북 지름 720cm, 둘레 23m이며 원형이다. 둘레는 가로 100cm, 높이 30cm 정도로 잘 다듬은 직사각형 돌을 수직으로 4~5단 쌓았다.

주변에서 볼 수 없는 화강암이 섞여 있는 것으로 보아 먼 곳에서 운반해다 다듬어 쌓은 것으로 보인다. 내부는 흙으로 채웠는데 돌로 된 벽보다 40여 cm 높게 하였다. 석축한 벽의 높이는 가장 낮은 곳이 서북쪽으로 90cm, 높은 곳은 동쪽으로 160cm이다.

봉수대의 남쪽 부분에는 폭 175cm의 문이 설치되어 출입할 수 있게 하였고, 중앙에는 가로 340cm 세로 200cm, 깊이 90cm 정도의 직사각형 구멍을 만들었다. 이 구멍의 북쪽에 석축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석축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봉수대에서 10여 m 폭으로 평지가 이어지고, 이어서 급경사지가 나타나 이곳에도 봉수대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봉수대 동북쪽 10여 m 떨어진, 급경사지 아래에는 20여 평의 평지가 있어 봉수대에 사용하던 연료를 모아둔 곳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원산도봉수대

### (5) 망해정 봉수대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밤까시 마을 남쪽 산봉우리(해발 118.7m)에 있는 봉수대이다. 원산도 오봉산에 있는 봉수대에서 받아 충청수영에 전하는 봉수대이다. 원산도까지는 12.15km, 충청수영 서문까지는 1.27km이다.

충청수영이 내만(內灣)에 깊숙히 있어 원산도 봉수대가 보이지 않으므로 원산도 봉수대가 바라보고, 충청수영으로 통하는 뱃길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이라 충청수영의 전방 초소 역할을 하던 봉수대이다.

봉수대 자리는 큰 웅덩이가 패여 있다.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일제시대에 포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판 것이라고 한다. 웅덩이는 지름 약 10m이고, 깊이 2.5m, 둘레 폭 4~5m이다.

봉수대가 있던 봉우리 남쪽에는 3~4m 폭의 평탄지가 있어 길로 이용된다. 봉수대가 있을 때 삭토한 것으로 생각된다. 북쪽에도 2~3m 폭의 평탄지가 보인다.

봉수대지 동쪽에는 넓은 평탄지가 있고, 팽나무가 있으며 조선시대의 기와 조각, 질그릇 조각 등이 발견되어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봉수군이 거주했거나 연료를 저장했던 공간으로 보인다.

이 봉수대가 망해정(望海亭) 봉수라고 이름 붙여진 것으로 보아 이곳에 바다를 감시하는 망해정이란 정자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곳은 충청수영에서 1,27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므로 충청수영에서 직접 관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 6. 산성

### 1) 진당산성(鎭堂山城)

- 위치 : 보령시 주포면 보령리, 청라면 장산리.

보령현의 치소였던 주포면 보령리와 청라면 장산리 사이에 있는 해발 351m의 진당산 정상에 있다. 진당산은 堂山 또는 唐山이라고 하였던 것인데, 산은 옛 보령현의 진산(鎭山)으로 되어 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진당산성

地乙峴石城 在現東五里周圍三百二十步頽落無井泉

(지을현 석성은 현의 동쪽 5리에 있는데, 둘레가 3백 20보이다. 거의 무너졌고, 우물이나 샘도 없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오늘날 진당산의 남쪽이며, 보령리의 동쪽으로 청라면으로 통하는 고개를 ‘질고개’ ‘질재’라고 하는 바, 이 고개를 한자로 표현할 때 ‘地乙峴’으로 표기한 것이고, 오늘날의 진당산을 세종 때까지는 지을현성(地乙峴城)이라고 했음을 알 수 있다.

『東國輿地勝覽』에는 ‘당산(唐山)은 본현 동북쪽 4리 지점에 있는 진산(鎭山)이다. 지을현은 본현 동쪽 5리 지점에 있다’ 하였고, 성의 이름은 당산성(唐山城)이라 하여

唐山城石築 周一千八百十尺內有一井今廢

(당산성은 석축으로 되었는데, 그 둘레가 1,810척이며, 안에는 우물하나가 있었다. 지금은 폐해 버렸다)

라고 하였다. 이렇게 당산(唐山)으로 부르기도 했지만, 이 산에는 70여 년 전까지도 당집이 있어 마을사람들은 당제를 지내기도 했다. 그리하여 당산(堂山)이라도도 하는 것이다.

현재 성지의 둘레는 890m 정도로 확인된다. 진당산성은 성의 서편이 가장 높고 이곳을 경계로 하여 주포면과 청라면이 갈라진다. 서에서 동으로 경사가 완만한 지세를 이용하여 쌓고, 서쪽은 급경사여서 엄밀하게 말해서 청라면에 속해 있다. 성벽은 본래 석축이었으나 대부분의 성벽이 붕괴되어 일부에서만 석축의 모습이 보인다. 서에서 동으로 길고 좁은 등성이를 이용하여 남북으로 쌓인 성벽은 동쪽 끝부분에 이르러서 경사가 완만하다. 서쪽 정상부는 약 300평 정도 평탄한 대지가 형성되어 있어 밭으로 경작된 것으로 보이며, 기와조각이 발견되고 있어 가장 높은 위치의 건물터로 추정된다.

이 산성은 전체적으로 산정식(山頂式) 산성이다. 성벽은 자연활석(自然割石)으로 대체적인 외면을 맞추어 쌓고, 안쪽으로는 부스러진 석재를 넣었다. 한편 성내의 흙을 삭토하여 다진 내탁의 방법을 취하여 축성하기도 하였다. 성벽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중간부분까지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성벽은 성내의 지면보다 상당히 높은 정도까지 축조되었던 듯하다. 특히 남쪽의 성벽과 동쪽의 성벽 부분은 협축(夾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문지는 남·동·북문지 3곳이 있고, 남문지에서 동으로 약 50m 정도 내려가서 또 하나의 작은 문지가 있으며 북문지의 동쪽 약 60m지점과 서쪽 50m 지점에는 현재의 통행 소로가 있다. 그러므로 확실하게 문지라고 판단되는 곳은 4개소이다.

남문지로 보이는 곳은 성의 안쪽에서 보아 왼쪽의 성벽이 성의 안쪽으로 들어오고 오른쪽의 성벽이 성의 바깥으로 나가 있어, 문구(門口)의 개구부(開口部)가 어긋나기 때문에 통행자는 S자 모양으로 돌아서 드나들었던 것이다. 이는 문의 바깥에 문의 좌우 성벽에서 또 다른 돌출된 성벽을 내쌓아 문을 지키고 보호하는 옹성의 특징을 응용한 것으로 보이며, 개구부의 간격은 약 6m이다.

남쪽 문지의 안쪽으로는 돌로 쌓은 축대가 있는, 40m×30m쯤 넓이에 건물터로 보이는 평탄부가 있다. 이곳에서 남쪽으로 통행하는 길이 있는데, 폭이 3.5m이다. 이곳은 좌우의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문구부(門口部)가 분명하지 않으나 성벽 바깥쪽으로 덧쌓은 흔적이 있어 중요한 통로로 이용되었던 듯하다.

동문지는 성의 가장 낮은 위치에 있다. 좌우의 성벽은 매우 붕괴가 심하지만 폭 6m의 문구부가 있고, 이 문구부에서 좌우로 약 30m 떨어진 지점에서는 성벽이 바깥으로 둥글게 휘어져서 마치 곡성(曲城)처럼 되어 있다. 이는 동문의 보호를 위해 의도적으로 축성한 것이라 여겨진다. 문지의 안쪽은 평탄한 대지가 약간 있고, 바깥쪽은 계곡으로 낮아지므로 성안의 물이 나가는 수구가 이곳에 있었다고 여겨진다.

북문지는 정상부에서 북쪽으로 내려가는 경사진 곳에 있는데, 개구부의 좌우벽은 다른 곳보다 넓고 높게 쌓아 문돈(門墩)처럼 되었던 듯하며, 지금도 통행로 이용되고 있다.

성의 동북쪽 끝부분에 지름 15m, 깊이 3m나 되는 커다란 구덩이처럼 생긴 땅이 있다. 원형으로 움푹 들어가 있는데, 정지(井址), 혹은 작은 못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성안에는 몇 개의 평탄대지가 있어 많은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곳곳에서 기와조각과 토기조각이 발견된다. 기와조각은 대부분 무늬가 없는 것이며, 약간의 사격자문(斜格字文)이 있는 것이 있다. 한편 건물터로 추정되는 대지 부근에는 어골문(魚骨文) 무늬가 있는 기와조각과 두텁고 투박스런 청해파문(靑海波文)의 기와조각이 발견되기도 하여 이 산성이 삼국시대부터 고려말을 거쳐 조선시대까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곳에서는 「新」자가 찍힌 명문(銘文) 와편이 발견되기도 한다. 新자의 하부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지만, 보령의 백제시대 현명이 신촌현(新村縣)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신자 명문와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승석문(繩蓆文)과 파상선문(波狀線紋)이 있는 토기편이 많이 발견되고, 신라계의 회청색 토기편도 발견된다. 따라서 이 산성은 백제의 산성이었다가 통일신라 이후 계속하여 지역주민들의 입보농성처(立保籠城處)로 유지되면서 개축과 보수가 이루어져 온 것으로 보인다.

## 2) 고남산성(古南山城)=봉당성(鳳堂城)

- 위치 : 보령시 주포면 봉당리 산62

현재의 보령읍성이 축조되기 전에 읍성으로 사용되었던 산성이다. 『동국여지승람』에 인용된 정대(鄭帶)의 동헌기(東軒記)에는 왜구에 대비하여 태조 경진년(庚辰年)에 봉당에 성을 쌓고는 이를 방어하는 곳으로 삼았으나, 성지(城池)가 좁고 얕은데다가 험준하고 조격(阻隔)한 공고(鞏固)함과 우물을 보유하는 편리한 점이 세종 경술년에 지내동의 당산 남쪽에 새로운 읍성을 쌓았다고 하였다. 이 기록 중 태조대는 경신년이 없고, 서기 1400년인 태종 즉위년이 경신년이어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서기 1400년에서 읍성이 새로 축조된 1430년(세종 12)까지는 봉당성이 보령현의 읍성이며 치소였다. 보령현의 치소는 백제 때부터 봉당성에 성을 쌓을 때까지인 1400년까지는 주포면 보령리 구성재에 치소가 있었다.



아현산성과 봉당산성

읍성이었던 봉당성의 규모에 대하여는 『세종실록지리지』의

邑石城周回一百七十三步無井泉

(읍 석성은 둘레가 173보인데 우물이나 샘이 없다)

라고 하는 기록이 곧 봉당성의 규모를 말한 것이다. 오늘날 약 400m 정도 남아 있다. 새로이 축조되고 있는 읍성(현재의 보령읍성)은

石城周回二千一百九尺

(석성은 둘레가 2,109척이다)

라고 하여 봉당성보다 크지만, 아직 읍성은 완성되지 않은 상황임을 기록하고 있다. 세종실록지리지는 세종 7~8년경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석축으로 둘레가 173보에 불과한 작은 성인 봉당성을 『대동지지』에서는

鳳堂古城西二里本朝定宗二年築城址淺狹

(봉당고성은 서쪽2리에 있으며 본조 정종2년 축성한 터인데 물이 얕고 내부가 좁다)

라고 하여 조선후기에 오면서 터만 있는 폐성지로 변했음을 기록하고 있다. 이어 1930년대 조사된 자료인 『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에는 둘레 270칸의 토루(土壘)로 벽이 대체적으로 완전하다고 하였음을 보아, 석축 위에 약 500년 동안 부토(腐土)가 쌓여 폐지된 지 오래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고남산성은 봉당천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서쪽에 해발 200m 정도의 산맥이 있는데, 이 산줄기의 북쪽 끝부분에 해발 98.8m의 작은 야산이 있어 사방이 거의 단절되어 독립 구릉처럼 된 산에 있다. 고남산성은 이 야산의 약 7부능선쯤을 둘러싼 테피형의 자그마한 산성으로, 남쪽에는 작은 골짜기가 있고 이 계곡 아래에는 고내미라 부르는 마을이 있다. 산은 높지 않으나 사방의 전망이 좋아 서해바다까지 훤히 보인다.

성은 산의 정상부에서 동서로 높은 위치가 되며, 남북쪽은 각기 특징있게 축조되었다. 전체의 평면은 반달꼴이며, 좁은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다. 성벽의 안쪽은 약간 평평하고 성벽은 단을 이루며 형성되고, 폭 5~10m 정도의 단구형을 이루었다. 따라서 마치 2중의 계단식 성벽처럼 보이는데, 성의 외부의 단상부분은 해자였다가 메워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안쪽의 성벽은 군데군데 경사지게 축조한 석재가 노출되어 있어 토축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석축이었음을 보여준다. 남쪽 성벽의 중앙부는 바깥으로 내밀고 있으며, 그 좌우에는 문터처럼 안팎으로 통행할 수 있다, 북벽은 4단의 계단식으로 되어 있다.

성문터는 분명히 확인되지 않으나 남벽의 중간쯤에 계곡으로 오르내리는 통로가 있어 S자 모양으로 돌면서 통행한다. 북벽의 서단(西端)에 있는 통행로는 성벽을 허물어 최근에 만든 것이다.

성안에는 우물이 없으나 서쪽에 치우쳐 작은 웅덩이가 있는데, 아마도 물을 저장했던 시설로 보인다. 성안에는 건물이 들어설 만한 평탄한 대지가 정상부, 정상부의 서쪽, 남벽 중앙부, 동남 각부(角部) 등 4곳이 있고, 북벽의 중간쯤에도 비교적 평탄한 곳이 있다.

성내에는 토기편과 와편이 수집되는데, 특히 경질(更迭)의 회흑색 승석문(繩蓆文)인 것과 사격자문이 있는 것이 많아 이들 토기편은 백제의 특징적인 것이어서 이 산성은 15세기 초 한때 읍성으로 이용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백제시대의 산성으로 보인다. 이 산성은 토축의 산성으로 백제 산정식 산성에 속한다. 기와조각도 이면(裏面)에 포목문(布木文)이 찍히고 황갈색의 격자문이 표면에 찍힌 것들이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선초기에 사용되던 퇴화된 청자편과 황갈색의 유약이 발라진 자기와, 와편도 비교적 후대의 것이 발견되어 1400년대 일시적으로 읍성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 3) 아현산성(我峴山城)

- 위치 : 보령시 주포면 연지리

주포면과 오천면의 경계를 이루는 산줄기의 가장 높은 봉우리는 해발 220m 정도의 가파른 석벽으로 되어 있는데, 아현산성은 그 정상부에서 남향한 정상부를 둘러싼 테피식 석축산성이다. 사방을 내려다보는 경치가 아름답고, 서해바다가 한 눈에 보인다.

이 산성에 대하여 『동국여지승람』에서는

我峴山城石築周七百四十五尺今廢

(아현산성은 석축으로 그 주위가 745척인데 지금은 폐해버렸다)

라고 기록되었다. 따라서 고려말이나 조선초기까지 사용되다가 15세기 후반에 이르러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성의 둘레는 360m 정도이다.

성의 전체 평면은 남북으로 길고 동서로는 폭이 좁으며 북쪽 산정부는 넓고 높으며 남쪽으로 낮아지며 좁아들었다.

성벽은 할석으로 쌓여 동·남벽은 내외협축이며, 북쪽과 서쪽은 외면의 상당한 부분을 석재로 쌓았으며, 성의 안쪽으로는 내탁하였다. 특히 동벽은 내외 협축한 성벽에 안쪽으로 평평한 대지가 길게 형성되었고, 성벽 안쪽의 평평한 곳 안쪽으로 다시 암벽 사이를 또다시



축조한 이중의 성벽으로 되어 있다. 성벽은 많이 무너져 내렸으나 남벽과 동벽에서는 내외의 축성된 기반부위가 군데군데 남아 있어서 성벽의 윗부분 두께가 5m 정도 된다. 성벽의 바깥쪽은 모두가 가파른 경사면이고 성벽의 안쪽은 5~15m 폭으로 평평하게 주위를 에워쌌다. 성을 쌓은 석재는 산에 본래부터 있던 암괴(巖塊)를 떼어내 쌓은 것이다.

문은 남북의 두 곳에 있다. 남문터는 양편 좌우의 성벽이 5m 이상 육축(陸築)하되 서쪽의 성벽이 바깥으로 휘고, 동쪽의 성벽이 안으로 휘어 S자 모양으로 돌면서 통행하도록 되어 있다. 북쪽의 문지는 북벽의 서쪽에 있다. 현저하게 좌우의 성벽이 어긋나도록 띄워놓아 성안과 밖이 이중으로 차단되고 S자 모양으로 굽어 통행토록 되었는데, 문구(門口) 폭은 1.5m에 불과하여 암문(暗門)으로 추측되기도 한다.

성안의 동서로 길게 형성된 정상부에는 암반이 노출되어 있고, 가파른 지형이어서 물이 솟아날 곳은 없고, 다만 정상부에서 서남측으로 약간 내려선 지점에 지름 5m 정도의 웅덩이가 있다. 또 하나의 웅덩이가 성의 남쪽벽에 있는데, 이들은 저수용의 웅덩이로 추측된다.

성안에는 고려와 조선시대의 기와조각과 도자기 조각이 발견된다.

이 산성의 서남향 바로 아래쪽 산사면에는 갈현리 백제 고분군이 있어 이 성과 고분군이 관련이 있지 않을까 추측되기도 한다. 이 산성은 산정식의 석축산성으로 백제산성의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 4) 대봉산성(臺峰山城)

- 위치 : 보령시 남포면 제석리·소송리

남포면 읍내리에서 서쪽으로 2km 정도 지점에 제석리와 삼현리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해발 180.2m의 봉산이 위치하고 있다.

이 산은 등경산이라고도 한다. 이 봉산의 정상 봉우리 부분을 띠(帶)처럼 둘러싼 석축의 산성이 있다. 지형도에서 살펴보면 봉산의 지세가 평탄한 지형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완만한 것처럼 보이나 실제의 산세는 상당히 험준하다.



대봉산성

산성의 성벽은 사면을 전체적으로 석축으로 구축하였으며, 전형적인 백제의 산정식산성(山頂式山城)이다. 현재 남아 있는 성벽은 없고 전체가 무너져서 만들어진 형태만 남아 있다. 모두 무너져 있지만 돌로 덮여 있어 나무가 자라지 않아 멀리서도 성의 흔적을 뚜렷이 볼 수 있다. 성의 남북 폭은 82m, 동서 폭은 103m 정도이다.(돌무더기 상부 기준). 전체적으로 둘레 400m 정도의 산성이다. 여기에 사용된 석재들은 모두 봉산에서 채취한 것으로 보인다.

성벽은 사면의 전체가 급경사의 자연을 잘 이용하고 있으며, 급경사의 이유로 인하여 외면만 축조했던 것 같으며, 내부는 통행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을 낮추어 통행로를 만들고 있는데, 통행로의 넓이는 2~3m 정도이다. 특히 동벽은 심한 경사 때문에 무너진 석축들로 석괴(石塊)가 상당히 멀리 이탈하여 있다. 성의 주향은 동편의

소송리가 아니라 서향한 제석리 방향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 성의 축조 목적을 알게 하는 바, 바다와 관련이 있는 듯하다.

산 정상부에는 봉수대가 있는데, 석축으로 7m×8.5m 정도의 원형 축대를 쌓고 주변은 1.5m~2m 정도의 도랑을 둘러었으며 도랑 밖으로 1.5m~2m 정도의 돌담을 쌓았다. 돌담의 높은 곳은 약 2m쯤 된다. 그 뒤로 1.5m~2.5m의 도랑을 다시 둘러었다. 이 도랑 밖으로는 폭 1m~2m의 독을 쌓았다.

성내부에 수습되는 유물은 거의 보이지 않지만 석성 주변에서는 간간이 파도무늬 기와편, 백자편, 시루편 등이 발견된다.

산성의 정상에서 사방을 둘러보면 동으로는 남포읍성이 지척간에 보이고, 남쪽으로는 달산리 산성, 서쪽으로는 바다가 훤히 보인다.

## 5) 달산리산성(達山里山城)

- 위치 : 보령시 남포면 달산리

현재의 남포 읍내리에서 서남향으로 남포 저수지가 있는데, 바로 이 저수지의 남접한 낮은 야산에 있는 토축산성이다.

이 산은 달산리와 옥서리의 경계를 이룬다.

이 산성은 백제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삭토(削土)의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그 형태는 전형적인 산정식산성이라고 할 수 있다.

전체 성의 둘레는 약 300m로 규모가 크지 않다. 성의 남벽은 삭토에 의하지 않고 성토한 성벽이 30m쯤 있기도 하다.

그리고 남벽의 내부에는 상당히 넓은 면적의 평탄지가 있는데, 밭으로 경작되고 있다. 산의 지세가 상당히 험준하게 때문에 거의 삭토에 의해서 구축된 관계로 내부에는 자연스럽게 평평한 통행로가 만들어졌다.

문지로 확인되는 곳은 동문지 뿐이다. 넓이는 2.8m 정도 되며, 민묘가 1기 위치한다. 산의 정상부에는 평탄한 대지가 20×30m 정도 있는데, 조그마한 건물지로 추측된다.



달산리산성

## 6) 수부리산성(水芙里山城)

- 위치 :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두룡리, 남포면 옥서리

웅천 수부초등학교 뒷산인 해발 416m의 잔미산과 건너편 북쪽에 위치한 봉화산에 걸쳐서 축조된 산성이다. 성의 주향은 동남향으로 해안 쪽이 아닌 웅천천 방향의 동남향이다. 잔미산 정상과 봉화산 정상을 연결하면서 그 골짜기를 에워싼 포곡식 산성이다. 기본적으로 자연활석으로 축조하였다. 그러나 군데군데 자연의 암반을 이용한 곳도 있고 등성이 부분의 성벽은 토축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다.

축조의 형태를 보면 내탁에 의한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문지 부분만 약간의 협축이 보인다. 잔미산과 봉화산이 형성한 자연의 골짜기를 둘러싸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세가 험준하기 때문에 자연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취약부분을 보완하고 있다.

문지로 확인되는 곳은 수부초등학교에서 올라오는 곳과 정상부의 남부 사현리에서 오르는 곳의 2곳이 있다. 이 두 문지를 연결하는 고개를 사현(沙峴) 또는 새아니재라고 하여 현재의 이어나재를 넘는 국도 21호가 있기 전에는 과거 웅천과 남포를 연결하는 주된 통로였다.



수부리산성

이 산성의 방향이 웅천천 쪽의 동남향으로 건너편의 성동리산성과 마주보고 있다. 이 산성의 바로 아래에는 백제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남포현의 치소가 있었고, 이 남포현의 치소는 성주사의 대외 관문이며, 고려말에는 왜구가 침입하여 교두보로 삼은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건너편의 성동리 산성과 함께 고남포의 치소를 방어하는 기능과 밀접히 관련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이 산성의 전체 길이는 약 2,800여 m로 보령지역의 산성 중 가장 크다. 주변 산성의 배치나 규모, 그리고 바다로 연결되는 통로 기능 등을 감안하면 백제부흥운동 당시의 주류성과 연결시켜 생각해 볼 수 있는 성이다. 앞으로 기능상 많은 연구가 필요한 산성이다.

이 산성이 있는 잔미산의 정상인 해발 416m 지점에는 조선후기 만들어진 옥미봉 봉수대가 있어 남으로는 비인 칠지산, 북으로는 보령 조침산 봉수대에 응했다.

## 7) 대천리산성(大川里山城)

- 위치 : 보령시 웅천읍 대천리

보령시 웅천읍 대천리와 두룡리 사이에 있는 잔미산 정상(해발 367.9m) 지점에 있다. 웅천읍 대천리 철길 건널목에서 잔미산 능선을 따라 오르면 만난다. 산성의 중심에는 봉수대가 있고, 주변은 석성으로 둘러져 있는데, 남북 길이 약 250m, 동서 길이 약 70m이다. 성의 북·서·남쪽은 성벽이 무너져 형성된



대천리산성

돌무더기가 넓게 분포하고, 동쪽은 급경사를 이용하여 석축한 흔적이 뚜렷하다. 동쪽 성벽 위로는 길이 나 있다. 북쪽의 치 일부가 남아 있고, 남쪽 성문지에도 다량의 돌더미가 있는 것으로 보아 성문을 보호하는 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축성 방법은 내탁에 의한 것 같으나 그 상태가 심하게 파괴되었기 때문에 자세한 방법은 알 수 없다. 내부에서는 승석문·격자문 계통의 경질토기 파편이 발견된다. 둘레는 450m 정도 된다.

봉수대가 있었던 곳은 성 안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로 보인다. 현재는 돌무더기가 남아 있고, 민묘가 들어서 있다. 봉수대가 있던 곳 남쪽에는 여러 단의 평지가 있는데, 기와 조각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건물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기와는 대부분 고려시대 어골문이나 격자문 기와이다. 대천리 산성은 산 정상 부분의 극히 좁은 지역을 둘러싼 것으로 보아 봉수대를 보호하기 위한 성으로 생각된다.

고려시대에는 남포현의 치소가 대천리산성 동쪽 약 1.5km 떨어진 웅천읍 수부리 수안 마을에 있었으므로, 이곳은 수안 마을에 남포현의 치소가 있을 때 봉수대의 기능을 하다가 치소의 이동으로 폐쇄된 것으로 보인다.

성(城)의 옛 순수 우리말은 ‘갯’이었다. 그리하여 산성이 있는 이 산을 사람들은 ‘갯괴’로 불렀고 그리하여 오늘날은 이 산이 잔미산이 되었던 것이다.

## 8) 성동리산성(城洞里山城)

- 위치 : 보령시 웅천읍 성동리

보령시 웅천읍 성동리의 동남쪽에 해발 338m의 운봉산이 있고, 이 운봉산의 정상부와

성동리 쪽 서북향 골짜기를 에워싼 석축의 포곡식 산성이다. 운봉산에 있기 때문에 운봉산성이라고도 한다. 성의 전체 둘레는 약 1,450m 정도로 규모가 큰 산성이다.

성벽의 축조 상태를 살펴보면 자연할석을 이용하였으며, 공돌쌓기의 방법을 취하고 있다. 특히 남쪽인 정상능선 부분의 성벽은 지세가 험준하기 때문에 자연의 지세를 이용하면서 취약지점만 보완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정상부 남벽 부분에는 평탄지도 있는데 건물지로 추측되기도 한다. 대창리 쪽의 서벽은 돌무더기가 많이 남아 있다.



성동리산성

성의 주향은 서향이다. 운봉산의 지세가 동남향이 가파르고 서향한 방향이 비교적 완만하므로 이 완만한 산의 등성이를 따라서 구축했다. 서쪽 아래에는 웅천천이 있고 그 옆에

고남포의 치소가 있으며 마주보는 산이 잔미산으로, 그곳에는 수부리산성이 있어, 고려시대 수부리산성과 함께 고남포와 웅천천 하구의 통로 기능을 보호하는 중요한 기능의 산성이었음을 알 수 있다.

성안에서는 고려시대 어골문 기와편이 수습되는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와 그 이전에 사용된 산성으로 보인다.

2005년 운봉산 정상부에 시민의 쉼터인 정자(雲峯亭)가 건립되는 과정에서 정상부인 남벽 일부가 훼손되었다.

## 9) 창암리산성(倉巖里山城)

- 위치 : 보령시 주산면 창암리

주산면 창암리 뒷산이 운봉산이다. 이 운봉산의 북서향은 웅천읍 성동리·대창리이고, 남동향이 주산면 창암리이다. 운봉산의 창암리에서 화평리로 이어지는 산등성이에 토축한 테피식 산성이 있는데, 이것이 창암리산성이다.



창암리산성

일제시대 조사된 기록으로 마산(馬山)이라

고도 한 이곳 운봉산 자락에 둘레 약 200m 규모의 테피식 산성이 있으나, 파괴가 심하여 성벽이나 문터 등은 알 수가 없고 다만 삼국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격자문계(格子文系) 토기편이 발견된다. 실제로 화평리 샷갓재와 안굴 사이의 산을 주민들은 ‘마살피’라고 부르고 있다. 축사를 짓느라 일부 훼손된 곳이 있다.

## 10) 황율리산성(篋栗里山城)

- 위치 : 보령시 주산면 황율리

웅천과 주산 사이에 간치역이 있는데, 이 간치역의 동북향에 낮은 야산이 있고, 이 야산의 정상에 토축의 산성이 있다. 이것이 황율리 산성이다.

축성방법은 성의 내부를 삭토하여 이 곳에서 생긴 흙으로 성벽을 보완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전체 성의 둘레는 약 200m 남짓하며 산정식이다. 문지로 추정되는 부분은 남·북에 위치하고 있지만, 그 파괴 정도가 심하여 자세한 축조법이나 구조는 알 수 없다. 내부에서는 삼국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승석문이나 격자문 계통의 경질토기편이 발견되기도 한다. 이 산성은 창암리산성, 삼곡리산성과 삼각형을 이루며 배치된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은 퇴피라고 부른다. 마을 이름은 ‘황생이’이다.



황율리산성

## 11) 삼곡리산성(三谷里山城)

- 위치 : 보령시 주산면 삼곡리

주산면 삼곡리 동실마을에서 미산면 늑전리(대늑전마을)로 넘어가는 고개를 용오리재 또는 영월이재라고 부르는데, 또는 성재라고도 부른다. 이 고개는 과거 늑전사람들이 주산의 학교나 시장을 다니던 길이었다. 이 고개의 낮은 구릉의 정상부가 평탄한 곳이 있는데, 이곳이 성이다. 성의 둘레는 250m 정도 되며, 테피형의 토축산성이다. 석재가 일부 보여서 토석혼축인 부분도 있다. 성벽은 성터라고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완전하지 않으나 성터가 분명하고 성안에는 이웃한 작은 산성들처럼 승석문 격자문이 찍힌 삼국시대의 토기 파편들이 발견된다.

## 12) 향천리산성(香川里山城)

- 위치 : 보령시 청라면 향천리

대천에서 청양 가는 도로 36호선의 대천과 청라의 경계지점에 청천저수지가 있다. 그 저수지 남쪽에 향천리가 있다.

향천리 산성은 속칭 ‘시루성이’라는 마을에 위치하며 성주산 북쪽 산록의 낮은 야산 정상부에 있다. 이 산성은 둘레 약 200m 정도의 테피식 산성으로 성벽의 구조는 석축내탁 또는 편축의 방법을 사용했으며, 전체적인 형태는 남북으로 긴 타원형을 이루고 있다. 성내에는 회청색 토기편과 어골문, 격자 타날문 등이 시문된 와편이 수습되고 있다. 현재 성벽의 대부분은 허물어져 있으며, 서벽의 일부만이 형체를 알 수 있을 정도이다. 산성 주변에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다.



향천리산성

## 13) 오서산성(烏棲山城)

- 위치 : 보령시 청소면 성연리

이 성은 오서산의 서쪽으로 향한 능선의 하단부에 있는데, 성연리 성동마을의 뒷산이다.

협축식(夾築式) 석축산성으로 성벽의 높이는 4~5m이며 성벽의 너비는 4m 정도이다. 석재는 한쪽 면을 다듬은 할석(割石)으로 하단부에는 90×40cm 내외의 장방형 석재로 엇갈려 쌓고 윗단으로 갈수록 하단 크기가 작은 석재를 이용하여 경사지게 축조하였다.



오서산성

현재 남벽과 서벽은 대체적으로 원형을 유지하여 남아 있는데 약 60m 정도 된다. 그리고 성벽 안쪽은 자연석으로 채웠다.

산성의 서남쪽으로 진당산성, 남쪽으로 향천리산성 등과 상응하고 있다. 이 성에 관한 기록이 없어서 축성시거나 용도를 알 수 없으나 해안방어와 관계있는 산성으로 보여진다.

## 7. 목장성(牧場城)

### 1) 위치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지리지 남포현조에

옛 목장(牧場)이 1이다. 토진곶(土津串)에 있다. 둘레가 16리 34보인데, 안의 토장(土場)이 8리 40보요, 석장(石場)이 7리 36보요, 목장(木場)이 1백18보이다. 다만 도랑물(渠水)만 있고, 또 띠(茅)와 고사리 풀만 있다.

라고 하여, 위 기록에 의하면 세종 초기까지 남포현 토진곶에 목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과거 남포현에 해당하였던 바다 쪽으로 뻗도록 내민 육지인 곶(串)은 웅천읍 소황리 · 황교리 · 죽청리 · 관당리 일대이다. 여기에 현재 석성, 토성으로 연결된 약 11km에 이르는 성이 있으니 이것이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토진곶 목장의 목장성이다. 그리고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의 목장은 대부분 섬이나 바다 쪽으로 내민 육지인 곶에 설치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곳 웅천 서부 지역은 목장성 지형과 일치되는 곳이다.



목장성-토성부분(구룡리)

### 2) 사용 시기

이 토진곶 목장은 실록에 의하면 1427년에 폐장된 것으로 보이며, 그후 세종 13년(1431) 우목장(牛牧場)으로 다시 사용되다가 세종실록지리지 무렵에는 폐지된 고목장(古牧場)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아 牛牧場으로서의 기능도 오래 가지 못하고 세종 초기에 완전히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토진곶 목장의 설치 시기는 알 수 없지만 고려 시대부터 조선 세종 때의 세종실록지리지 편찬 전까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 3) 목장성의 특징

토진곶목장성의 성 폭은 상당히 좁다. 현존하는 토축 구간의 하부 폭은 4~6m에 불과하여 상부가 침식되어 퇴적되었음을 감안할 때 이보다도 더 좁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남아 있는 부분의 상부 폭이 가장 좁은 곳은 180cm에 불과하다. 석축 구간에 있어서는 더욱 좁아지는데 황교리 광암 마을 서쪽 급경사 구간에는, 남아 있는 하부폭이 180cm에 불과하다. 하부폭이 이 정도면 상부폭은 1m 정도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목장성의 능선 부분은 능선의 중앙에 성을 쌓아 성 안팎으로 평지가 형성되었고, 토축 구간에서도 주변의 흙을 떠올려 쌓아 양쪽에 넓은 평지가 형성되어 있다.

이것은 단지 말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만든 담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 4) 구간별 구조

(1) 성이 시작된 곳은 웅천읍 소황리 장안마을 동쪽 끝 돌출부에 해당한다. 이곳은 대체로 하부폭 4~5m, 상부 폭 2.3m, 높이 1m 정도로 비교적 뚜렷하게 남아 있다. 축성 방법은 양쪽 벽은 돌을 이용해서 쌓고 가운데는 흙을 채운 형식이다. 바다와 가까운 곳에는 바다에서 옮겨온 돌도 보인다. 여기서 연결된 통달산의 산록 구간은 경사가 22° 정도이며 석성으로 되어 있다.

(2) 통달산 구간은 해발 182.8m인 통달산 정상 부근을 통과하여 동서로 직선의 성을 쌓았다. 정상의 서쪽 부분은 비교적 뚜렷하게 남아 있으나, 동쪽 부분은 경사가 31° 정도로 급하여 훼손이 심하다, 특히 경사가 급한 구간에서는 성이 등고선과 수직으로 교차하지 않아 성을 쌓았던 돌들이 널리 흩어져 있다.

(3) 성의 동남쪽 웅천읍 황교리 구간은 모두 간척되거나 경지로 개간되어 성의 모습을 볼 수 없다. 현재는 제방과 수문이 있지만 옛날에는 해수가 통과하는 곳이었을 것으로 보여, 이 구간에는 해수의 이동 때문에 목책 구간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황교리 광암마을을 통과하고 황교리와 노천리 사이의 산 정상 부분을 지나는 부분에서는, 광암마을 구간은 토축구간인데 토축의 토성이 남아 있어 도로로 이용되며, 마을에서는 ‘성뚝’이라고 부른다. 토축 구간을 지나 산으로 이어지는 부분부터는 산의 급경사면에 석성을 축조하였다. 급경사면이라 훼손이 심하여 돌무더기만 보인다. 정상부분까지 좁게 축조하여 하부폭이 180cm에 불과하다. 말이 뛰어넘지 못하도록 만든 담장에 불과하다. 산 능선 부분은 능선의 한가운데에 성을 쌓아 목장성임을 보여준다.

- (5) 웅천읍 죽청리와 구룡리 사이의 산능선을 지나는 구간도 마찬가지로 능선의 가운데에 성을 축조하였다. 토축 구간에는 양쪽에서 흙을 올려 쌓아 성 양쪽에 평탄면이 나타난다. 토축 구간의 성벽이 가장 뚜렷하게 남아 있는 지역이다. 높이는 2.35m, 하부폭은 7m 정도이며, 성 양쪽으로 10여 m의 평지가 있어 주변의 흙을 퍼올려 성을 쌓았음을 보여준다.
- (6) 웅천읍 죽청리 장터 마을과 구룡리 마차울 마을 사이의 낮은 산능선을 통과하는 구간이다. 모두 토축으로 되어 있다. 심하게 침식을 받아 흔적이 보이지 않은 곳이 많다. 서해안고속국도가 통과하여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서 발굴 조사하였다.
- (7) 목장성의 동북쪽 부분으로 웅천읍 죽청리의 북쪽 지역은 모두 토축 구간이다. 침식으로 성의 모습을 찾기 어려운 부분과 성의 모습이 선명히 남아 있는 부분이 혼재한다. 서해안고속도로의 통과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서 발굴조사하였다.
- (8) 웅천읍 죽청리와 관당리의 경계를 이루는 낮은 산능선을 지나는 구간은 모두 토축 구간이다.  
관당초등학교 옆으로 올라온 성은 606번 도로를 건너 직각으로 꺾여 서쪽으로 달린다. 이 부분에서 일부는 웅천~무창포간 606번 도로 개설로 훼손되고, 일부는 뚜렷한 흔적이 보인다.
- (9) 웅천읍 관당리 구간은 모두 토축 구간으로 토성이 아주 양호하게 남아 있다.  
이 구간에서의 높이는 약 2m 정도, 하부폭은 8m 정도, 상부폭은 2m 정도로 남아 있다. 토성 양쪽으로 10여 m의 평지가 있다. 이 구간은 마을에서 ‘말밭’이라고 불러 말을 기르던 목장성임을 나타내 주고 있다.



토진곳 목장성 지도